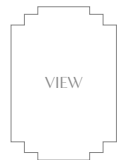




THEME STORY
아트뷰의 시각으로 동시대의
문화예술을 밀도 있게 다룹니다.
보다 깊고 보다 넓게 확장된 세계관으로
진입하는 문을 지금, 열어보세요.



VIEW
작가의 프레임 속 예술 세계가
펼쳐집니다. 때로는 무대 위 재해석된
움직임으로, 때로는 새하얀 캔버스 위에
구축된 가상의 공간으로 변주합니다.
낮선 감각으로 공간을 유영합니다.



ART CURATOR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창조적 여정은 우리 삶에
에너지를 불어넣고 흥미로운 순간들을
마주하도록 이끍니다.



BEYOND SEONGNAM
지역예술의 새로운 정통성을 구축하고,
성남 그 너머의 본질적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기술과 과학,
과거와 현재, 예술가와 예술가 사이
경계의 미학을 발견합니다.



ARTS & CULTURE EDUCATION

●
일상과 삶의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깊이보기
연극만원 <회란기>



RE:BUILT 재생건축을 읽다
예술적 영감을 자극하는 두 개의 발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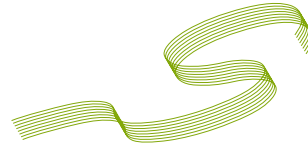
예술가의 작업실
정해나 작가

식물키우기

김미영 김유정 김이박 엄유정 이광호 정찬부 팀보타 허윤희

2022.5.27^{FRI} - 7.3^{SUN}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성 남 아 트 센 터
Seongnam Arts Center

문화예술 애호가와 성남아트센터의 아름다운 동행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에 대한 다양한 후원 활동을 통해 성남아트센터가 세계 유수의 복합문화공간과 어깨를 겨루며 성장하게 돕고, 더 많은 사람이 성남아트센터를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취지로 2006년 10월 발족했습니다. 이를 위해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의 목적 사업을 지원하는 중장기 발전 기금을 조성하고, 성남아트센터 성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 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원

은하수회원
박지향 (주)유엔젤 부회장 /
(재)유엔젤보이스 이사장

달무리회원
신현규/김복선

탄천회원
강영귀/김연경 (주)오피콘 대표이사
김진명/심정자 분당 예치과병원 원장
손경호/이동순 (주)경동 대표이사 회장
안봉혁/어윤경 유씨티코리아(주) 대표이사 회장
이완근/홍은희 (주)신성슬라에너지 대표이사 회장
이재환/한정의 (주)위즈코리아 설립자 / 명예CEO

철쭉회원
박동순/강송희 아람휴비스(주) CEO
변봉덕/이매연 (주)코맥스 대표이사 회장
우문식 에스엔엔지니아어링(주) 대표이사
정대혁/김대원 나우(주) 대표이사
(사)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성남상공회의소
탄천문화포럼 100인회

개인회원

무지개회원
김경자/박성희 고모아트웍스 이사

탄천회원
박 철/하정진 아이파트너(주) 대표이사
여영동/이옥자 전 (주)씨너스 회장
최계순/김순자 (주)반포산업 대표이사

철쭉회원
강정원/정병태 (사)한국미술협회 상임고문,
프랑스 작가협회 회화분과위원
강효주/이동연 필립강갤러리 대표,
한국문화경제연구소 소장
김길복/이승숙 한국수도경연연구소장, 공인회계사
김중술/민안선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담 대표이사
(주)예장디앤씨 이사

김명자/이승오 산후조리원 락크렘 대표
김문기/김인숙 (주)금화 대표이사
김연태/이주숙 북극성제일치과원장,
前 성남시치과의사협회장
김영수/원종순 前 문화체육부 장관, 한국청소년문화연구원 이사장
김중헌/정송희 (주)특수건설 대표이사
김진환/이화용 법무법인 새한양 대표변호사,
前 서울지검장

김태호/김경자 前 농협중앙회 이매동 지점장
남궁원/김순미 남송미술관 관장 / 예원유치원 원장
남선우/정정섭 국제로타리 3600지구 前 총재
마희자/조득환 서진공방 대표

박미경/강대식 (주)조영실업 대표이사
중원구 보건소 약사
(주)평화기업 이사

백종훈/지용애 한국디지털콘트롤(주) CEO /
송파중학교 교사
손의명/손외자 손의명치과 원장 / 한국화가
故송 자/탁순희 前 (주)대교 이사장
신동화 경기일보 상무
신상진 (주)유엔젤 제작감독
오풍영/이승희 신명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회장
윤영상/박인영 (주)이글프로세스 콘트롤스 대표이사
이경화/이정우 (사)오연문화예술원 이사장
故이성무/김복기 前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前 국사편찬위원장

이은화/정인희 (주)언어문화원 대표이사
이임수/이화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예가
이정식/고옥주 (주)서울문화사 대표이사 사장

故이종덕/김영주 前(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창립자
이지은/김순건 음악인 / 하림상사 대표
이호순/김명순 세일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
(사)한국발레협회 부회장
임삼규/정효정 (주)대일소재 상무 / 약사
임현주/김윤선 메리츠화재 부장 / AMK
장세영/김준식 한화솔루션 부사장 / 집코리아 CTO
장형화/임경희 N스페이스 회장 / N갤러리 관장
전명자/김정길 서양화가 / JKKIM & Co. INC 대표
정성조/심윤경 (주)패션아일랜드 대표 /
D&M Space 대표

정승립/한정복 세일기공(주) 대표
정용석/이승설 성남FM방송국 대표
정은경/박민걸 모란새로운악곡 대표 /
명당한의원 한의사

정은기/박은숙 前 국립서울병원원장 / 서양화가
정인택/유경희 (주)ING생명보험 명예전무
조남주/이규철 미술단체 <縹和色> 前 명예회장
최병주/박인수 세무법인 청담 대표,
(재)성남이로문화재단 이사장

최병오/박종길 패션그룹형지 회장
한병무/최정자 (주)삼화 F&F 회장
허용무/구은희 (주)가람산업 대표이사 회장
故허 참/홍애자 前 상아제약 회장 / 수필가
황광석/조영순 (주)케이씨피 대표

이매회원
김선애 (재)사랑정원 이사장
박명숙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후)글로벌미트플랫폼 GMP 대표이사
림에이엠시 대표
박영일 화가
서정림 정효국악문화재단 대표
윤향남 안양예술고등학교 이사장
주재근
최은희

까지회원
장미영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 부사장
전동욱

명예회원
신선희 무대미술가,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임원진

회장 박지향 부회장 강효주 황광석
이사 김연태, 박동순, 서정림, 정대혁, 황광석 감사 김길복, 김문기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후원회 사무국

전화 031-783-8033 팩스 031-783-8020 이메일 mecenat@snart.or.kr

가입 기준	회원 구분	평생회비
법인(단체 포함) 개인	은하수	1억 원 이상
	달무리	5,000만 원 이상
	무지개	3,000만 원 이상
	탄천	1,000만 원 이상
	철쭉	500만 원 이상
개인	이매	(5년)300만 원 이상
	까지	(2년)100만 원 이상

※ 500만 원 이상은 평생회원, 부부회원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들려주는 클래식 이야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하는

2022 마리네 콘서트

MUSIC FROM 'THE FAIREST ISLE'

2022년 3월~12월(총10회)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
청남아트센터 콘서트홀

4월 22일(목)
영국의 오르페우스, 퍼셀

퍼셀 / '요정의 여왕' 모음곡
퍼셀 / 오페라 <디도와 아에네아스> 중 '디도의 라멘트'
퍼셀 / 압델라자르 중 론도
퍼셀 / '아서왕' 모음곡 외



카메라타 안티콰 서울
카운터테너 정민호

5월 19일(목)
우리시대의 합창음악

존 러터 / 생일 마드리갈
밥 칠컷 / 세상을 바꾼 5일
엘가 / 그들은 쉬고 있다 외



국립합창단
지휘 윤의중

ARTIST INSIGHT choiree

아오이데 트리오 <춤으로 나누는 기쁨과 슬픔>

2022년 4월 29일(금) 오후 7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www.snart.or.kr

티켓 R. 9만원 / S. 7만원 / A. 5만원 / B. 2만원

예매 INTERPARK 1544-8117

문의 성남문화재단 031-783-8000



UNIVERSAL BALLET

돈키호테

Don Quixote

2022. 5. 7. Sat. 5. 8. Sun. 오후 3시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THEME STORY



© shutterstock

06 인사이트

- 10 **칼럼**
모두를 치유하는 '돌봄의 예술'
재난의 시대 속 문화예술교육의 의미
- 12 **현장의 목소리**
연결 속에 일상을 회복하기
예술강사에게 묻다
- 18 **들여다보기**
지금, 배우러 갑니다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VIEW



- 26 **미리보기 1**
유쾌하고 매혹적인 사랑의 서사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
- 28 **미리보기 2**
4월의 봄, 앙상블이 꽃피다
아티스트 인사이트 시리즈 II
아오이데 트리오

- 30 **미리보기 3**
영국의 오르페우스, 퍼셀
마티네 콘서트 4월



- 32 **미리보기 4**
700년을 이어온 이야기에 담긴 염원
연극만원 <회란기>

ART CURATOR



- 38 **기후변화와 예술**
지구를 위해, 천천히 걷는 사람들을 위해
기후위기 속에서 예술하기
- 40 **기술과 예술**
메타버스에서 탄생하는 작은 아이들
촉지법, 분신술, 초인격의 삶
- 42 **미술 길라잡이**
미술 시장의 플레이어들
미술 시장의 분야별 특성 이해하기
- 44 **일상에서의 디자인**
의자 인간
예술과 디자인 사이에서 진화하다
- 48 **영화속 클래식**
길의 끝에서, 삶은 계속된다
영화 <노매드랜드>와 루도비코 에이나우디
- 50 **RE:BUILT 재생건축을 읽다**
재생건축의 아이콘
예술적 영감을 자극하는 두 개의 발전소

BEYOND SEONGNAM



- 60 **예술가의 작업실**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하여
정해나 작가
- 66 **성남문화재단은 지금**
- 71 **캘린더**

SOUNDSCAPE

당신의 춤이 에너지가 되는 순간

넙따랗게 펼쳐진 잔디밭, 저 멀리 잔잔한 파도가 밀려오는 바다와 한낮의 태양빛이 일렁이는 멜버른의 세인트킬다St. Kilda 해변. 2018년 이곳에선 소리가 풍경이 되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에너지로 승화하는 마법 같은 시간이 펼쳐졌다. 바로 사운드시케이프Soundscape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이다.

프로젝트는 조던 풀링Jordan Pulling, 패트릭 알렉산더Patrick Alexander, 에릭 비쇼프Eric Bischof 그리고 라이언 매커러Ryan Mackerer, 이 네 명의 크리에이터가 태양, 바람, 그리고 움직임으로부터 발생하는 청정에너지를 활용해 재창조된 시각과 소리를 감각적으로 경험하도록 이끌어가는 과정이었다. 덕분에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춤을 추거나 신명 나게 점프를 하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일에 몰입하게 된다. 예술적 영감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재생산에 대하여 고민한 결과인 셈. 공간은 태양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얇은 필름Wave과 발바닥의 압력을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Power Paver, 그리고 생성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어쿠스틱 셸Acoustic Shell로 구성이 된다.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의 움직임이 지구를 되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따뜻한 메시지가 느껴지는가. 이러한 움직임을 이끌어 낸 것은 랜드 아트 제너레이터Land Art Generator 대회였다. 자연에서 청정 재생에너지를 수집해 전력으로 바꾸어 도시에 공급하는 일련의 과정을 특정한 공간에서 예술적 창조물과 결합해 완성하는 공공예술 디자인 공모전이다. 2010년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뉴욕, 코펜하겐 등을 거쳐 2018년엔 빅토리아주의 초청으로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2022년 독일 만하임에서 새로운 예술적 여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글 임보연 내셔널지오그래픽 트래블러 한국판 편집장
사진 제공 Land Art Generator(landartgenerator.org)





ARTS & CULTURE EDUCATION

● 일상과 삶의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 10 **칼럼**
모두를 치유하는 ‘돌봄의 예술’
재난의 시대 속 문화예술교육의 의미
- 12 **현장의 목소리**
연결 속에 일상을 회복하기
예술강사에게 묻다
- 18 **들여다보기**
지금, 배우러 갑니다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두를 치유하는 ‘돌봄의 예술’

재난의 시대 속 문화예술교육의 의미

인류의 역사는 자연에 대한 투쟁과 승리의 일대기였다. 인간은 자연의 정복자이자 파괴자였고, 문명은 자연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도구와 기술을 이용하며 생명의 뿌리인 자연을 함부로 성급히 훼손했다. 휴머니즘은 자연을 소외시키는 인간중심주의와 다르지 않았다. 인간은 스스로 서식지인 자연을 서슴없이 파괴했고 그저 지배와 이용 수단으로 치부해버렸다. 그러자 인간은 자연스레 자연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감염병은 자연의 역습과 다름없다. 산불과 홍수, 태풍 등의 재난 역시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침범해온 인간문명을 향한 준엄한 경고와 같다.

사람들은 마음 아프고 끔찍한 광경을 마주하기를 기피한다. 그 보다는 즐거운 오락이나 편안한 위로를 선호하기 마련인데, 때론 예술도 이에 적극 동조해왔다.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서도 어제와 같은 일상을 반복했고, 심각한 위기를 감지하더라도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머리로만 생각하고 입으로만 문제들을 떠들 뿐이었다. 현재를 살기 위해 미래를 죽여오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예술은 미래를 위한 경고이며, 일종의 조기경보 시스템이 되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Hans Ulrich Obrist의 외침은 재난의 시기에 더 큰 울림으로 공명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도 마찬가지다. 불편하니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려 한다. 먹고살기 바쁘는데 어떻게 지구의 건강까지 신경 쓰냐며 어리광을 부릴 뿐이다. 하지만 어느새 지구가 보내는 마지막 조난 신호를 마주하고 있다. 추상적으로 멀게만 느껴지던 재난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실제적 경험을 강제하는 것이다.

재난의 시대, 예술과 자연의 공존

이러한 재난상황 속에서 예술이 할 일은 무엇일까. 예술의 뿌리는 자연이다. 예술가들은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인간과 자연, 예술과 자연의 공존을 늘 꿈꿔왔다. 자연을 닮은 예술은 인간끼리만 더 나은 삶에 매몰되지 않았다. 그 대신 순환과 순응의 미덕으로 생태계 모두와 관계 맺는 삶을 추구해왔다.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며 인간과 지구를 연결할 수 있는 적극적 행동을 촉발시켜온 것이다. 이렇듯 예술을 통해 생태적 사고의 전환을 이끌고 자연을 돌보는 삶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이 시대 예술의 절실한 의무라 하겠다.

그러므로 예술교육의 씨앗은 재난의 시대일수록 소중하다.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예술교육이 공들여

가꿔온 감성은 상대방의 고통을 내 것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다름 없었다. 이 돌봄의 예술은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굳건한 연결을 복돋우며 다양한 생명의 공존을 위해 노력해왔다. 인간은 지구 생태계에서 쓰레기를 만드는 유일한 생명체여서 ‘호모 쓰레기쿠스’란 오명에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쓰레기를 버리면 청소차가 치워버리니 저절로 사라져 없어지는 줄 착각하지만 대개의 쓰레기는 토양에서 생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이다. 한번 생산된 플라스틱은 보통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씩 지구를 떠돌며 산과 바다에 방치된 채 환경을 오염시킨다. 한국은 어느새 세계 5위의 플라스틱 사용 국가로 부상했고, 1인당 배출하는 페트병이 연간 5,000개에 이른다. 이처럼 플라스틱과 결속된 삶의 태도나 습관은 비극적이게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최첨단 진화와 발전을 성취한 인간문명은 현대인의 더 쾌적한 삶을 위해 자원과 에너지를 물 쓰듯이 소모하고 있다. 하지만 지구에 남긴 인류의 흔적은 황폐해진 숲과 산, 더럽혀진 공기, 오염된 물 등 치명적 희생을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예술이 예술을 하느라 지구에 남긴 상흔들도 도처에 난무하고 있다. 예술가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이나 온실가스, 에너지의 무분별한 소비가 관행처럼 굳어졌기 때문이다. 인간문명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화려함과 편의성이 곧 자연의 고통임을 자각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므로 생태의 순환과 연결을 회복시키는 예술의 다양한 사례를 발굴해 예술교육으로 구현하길 갈망한다. 지난 몇 년 동안 갑작스러운 감염병의 확산으로 예술교육현장은 격한 혼란을 겪어야 했다. 개인적으로는 이 격변의 정점에서 오히려 예술의 근본에 대해 질문하며 이제껏 당연히 고착시켜온 관성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재난의 시대, 지구의 아픔에 공감하고 전지구적 위기를 깨닫는 생태적 감각을 복돋기 위해선, 지탱 가능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예술교육의 역할을 사무치게 일깨우고도

싶었다. 그리고 자연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예술을 전달할 순환 구조를 탐색하고, 고정된 틀과 기존의 관행을 과감히 되돌아보길 바랐다. 그렇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외려 발상의 창의적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품게 되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

기후위기 시대, 예술의 역할을 일깨우는 유의미한 사건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북극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음악가들의 투쟁, 해양오염의 주범인 섬유산업 폐기물을 소재로 한 미술 작업, 멸종되는 생태종과 함께 사라져가는 자연의 소리를 담으려는 사운드 아티스트, 방사능 폐기물의 영구처분장을 모티프로 한 국악 창작곡, 후쿠시마 방사능에 오염된 피아노의 자연 복원 작업 등 자연 파괴와 오염의 심각성을 예술가들은 몸소 처절하게 소리쳐왔다. 기존의 예술이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을 마냥 유미적으로 표현했다면, 이 시대의 예술은 불편한 죄책감을 불협음의 음정 같은 예술의 방법으로 각성시키기도 한다. 비록 예술, 혹은 예술교육이 이 시대의 재난을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해도, 문제 인식을 높이고 유의미한 실천을 이끌어내리란 믿음을 잃지 않고 싶다. 예술적 영감은 때로 과학자의 분석이나 정치인의 선동, 언론의 보도보다 큰 울림을 일으키지 않던가. 한 사람의 행동과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은 예술은 지니고 있다.

글 조은아 피아니스트,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지속 가능한 음악생태계를 위해 연주뿐만 아니라 강연과 저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향 퇴근길 토크 콘서트, KBS교향악단 실내악 시리즈 등 인문학과 연계한 공연 기획, JTBC ‘차이나는 클래스’, MBC ‘사색의 공동체’ 등 주요 방송의 음악 관련 강의 진행과 경향신문 ‘세상 속 연습실’, 한국일보 ‘조은아의 낮은음자리표’ 등 일간지 칼럼도 꾸준히 연재 중이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예술감독을 역임했고 부천아트센터 이사로 활동했으며, 2018년 문체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현재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젊은 청중의 성장을 북돋고 있다.

연결 속에 일상을 회복하기

예술강사에게 묻다

재난의 시대 속, 온라인과 비대면이 일상의 모습으로 자리 잡고, 급변하는 디지털 트렌드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떠올랐다. 기술의 발전만이 완전한 해답은 아닌 지금, 문화예술교육은 고립 속에 지쳐가는 개인들을 예술의 언어로 연결하고 다독이며 일상의 회복에 집중한다. 끝없는 격리와 단절 속에 여전히 출구는 명확하지 않을지라도, 위기에서 길을 찾는 이들의 움직임은 계속된다. 문화예술교육의 본질과 가치를 다시금 돌아보며 새로운 연대와 공존을 모색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들어본다.

참여 예술강사

김율리아·서혜윤·송하나·송하령·윤용훈·이한나



강사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서혜윤 저는 작곡을 전공했고, 음악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하고 수업하는 서혜윤입니다. 작년까지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꿈꾸는예술터의 소리랩 전임강사로 근무했고, 올해 꿈꾸는예술터의 정규 문화예술수업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한나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예술교육단체 'COLAP콜랩'의 공동 대표 이한나입니다. 디자인과 미술, 미디어를 매개로 다양한 참여자들과 함께 문화예술교육을 나누는 예술강사입니다.

송하나 오랜 시간 성남에 살면서 작업하고 있는 송하나입니다. 유치원, 아카데미, 대학, 도서관 등에서 미술 실기와 미술사 입문 과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이라는 생각보다는 미술 가이드로서 예술이 얼마나 흥미롭고 삶을 즐겁게 하는가를 공감하는 경험을 만들고 싶습니다.

송하령 성남미디어센터에서 영상 제작 및 뉴미디어 관련 VR/AR 강의를 진행하는 송하령입니다. 오래전부터 영상미디어교육이 지역사회와 마을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공공재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미디어 활동 사업 역시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율리아 저는 움직임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하는 김율리아입니다. 초등학교생부터 대학생,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을 만나고,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돕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전임강사로 활동했습니다.

윤용훈 미디어 중심의 융합 문화예술교육단체 '어반아츠 프로젝트' 대표이자 예술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1

재난의 상황은 해를 넘겨서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올해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주목할 점, 또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강사님들의 계획과 연계하여 말씀해주셔도 좋습니다.

서혜윤 현재 우리는 격리라는 단어에 점차 익숙해지고, 주변인의 격리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으로선 당연한 현상이지만, 거리두기와 사적 모임 자제가 일상화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개인의 고립이 미덕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요.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는 이럴 때 인간이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인 존재로 자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소수의 인원로 수업을 하더라도 그것이 작은 공동체, 작은 사회가 됩니다. 그 안에서 예술 활동을 하며 타인과 공존하고, 자신의 대외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것이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저 역시 그런 수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한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우리는 격리라는 이름으로, 방역이라는 이유로 칸간이 나뉘었습니다. 벌써 2년여 시간 동안 분절된 사회의 외로움을 홀로 버텨내고 있죠. 하지만 코로나 상황을

더 이상 거부하고 부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구성원들의 분절된 경험은 '개인화' '맞춤형' 등의 키워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절된 현 상황과 경험을 받아들이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집중하는 긍정적인 기회로 삼아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대상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이 위기 상황을 기회로 받아들여 일반화의 오류를 반성하고 각각의 이야기에 보다 집중적으로 귀 기울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하나 한국의 미술교육은 '실기를 잘하는 것'에 지나치게 치중된 경향이 강하지만, 대중적인 입장에서 보면 작가 양성이 아닌 '좋은 관람자'를 만드는 데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미술 온라인 수업 활성화는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며 자신을 기록하고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물론 상황이 좋아지면 대면과 비대면의 절충이 필요하지만, 기술적으로 잘 그리는 법 이외의 다양한 미술 교육법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팬데믹 이전부터 어린이 미술사, 그리고 작가로서 공감하는 쉬운 미술사를 준비해왔고, 이번 기회에도서관과 아카데미에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 중입니다.

“대면과 비대면이 지닌 여러 장점들을 파악해 소통하고, 예술의 가능성을 일상에서 다양하게 확장시키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송하나



ARTISTIC
EXPERIENCE & CONSENSUS

송하령 교육 특성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효율성 면에서 더 유용한 경우도 있지만 예술교육, 또 영상미디어교육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체험'과 '교감'이 바탕이 되는 예술교육 특성상 온라인에서는 한계가 있었죠. 다만 어차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온라인 수업에서도 '체험'과 '경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결국 기존 오프라인 수업의 패러다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커리큘럼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기관과 강사진이 심도 있는 연구와 협업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지난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공모를 시작한 '아르텍트 랩artact-lab' 아이디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술art'과 '만남contact'을 창의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연계하는 과정이자 문화예술교육의 '창의적 접촉contact'을 뜻하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술교육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을 지원하는 실험실입니다. 우리도 이 분야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율리아 재난의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대상을 만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문화예술의 가치를 경험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팬데믹이 삶을 할퀴고 간 그 상처를 회복시키는 힘이 분명 예술에 있고, 위험에 맞설 만한 가치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저 역시 올 한 해에도 '우리는 여전히 함께라는 연대 의식'과 '예술을 통한 회복과 성장'에 차근차근 도전해갈 생각입니다.

윤용훈 올해까지는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대면과 비대면 모든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준비와 운영이 필요하겠지요. 최근 대다수 문화예술교육 관련 공모사업은 대면을 전제로 하되, 상황에 따라 바로 대체 가능한 비대면 내용을 함께 준비하도록 하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라고 봅니다. 그동안 문화예술교육 현장은 팬데믹 속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실험과 도전을 이어왔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 또한 발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염려는, 이렇게 발견한 긍정적인 부분이 팬데믹 종식과 함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점인데요, 대면과 비대면 교육을 혼합한 블렌디드 러닝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마다 더 효율적인 교육 방식을 선택하면서, 참여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리라 믿습니다. 수년째 이어지는 재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과 소통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을 의사소통의 행위로 본다면,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 기회의 제공만으로도 대상자들은 단절과 고립에서 풀려나리라 생각합니다.

EXPAND THE POSSIBILITIES OF ART



EDUCATION CONTENTS ARCHIVE

Q.2

교육 현장에서 기술을 접목하고 연결하는 기획은 팬데믹 이후 확연히 증가했습니다. 대면과 비대면, 예술과 기술의 융합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나아가야 할까요? 또 오랜 비대면 상황 속에 그동안의 연대감이나 연결고리가 흐트러진 지금, 다시 한 번 촘촘한 연결과 관계 정립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서혜윤 요즘은 햄버거 하나를 먹더라도 사람과 한 마디도 나누지 않고 키오스크 주문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급변하는 기술의 교육 현장 침투에 당황스러웠고 반감이 있었습다. 하지만 인간은 이미 수백 년 동안 농업혁명, 산업혁명, 과학혁명, 종교혁명 등을 거치고 또 진화해왔습니다. 이처럼 지금의 과도를 거처서 또 안정기가 오겠지요. 그때까지 기술력을 다양하게 활용하며 장단점을 체화시켜보고 선택을 결정하면 됩니다. 요즘 어린 친구들은 온라인에서 만나 함께 숙제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는데요, 향후 메타버스가 상용화되면 문화예술교육의 판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하면서도 기대됩니다. 어쨌든 이런 온라인 기반의 관계와 느슨한 연결도 또 하나의 인간관계 형태로 굳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손잡고 같이 밥 먹는 관계만이 정답은 아니게 된 시대니까요.

이한나 요즘의 교육 현장을 생각하면, 앞으로 비대면으로 만나야 하는 이유가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의 교육과 소통 방식이 코로나 상황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앞당겨진, 교육 현장에 대한 필연적인 기술의 개입을 어쩌면 저만 부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 새로운 기술이 밀려드는 교육 환경이기에, 오히려 우리 예술강사들이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예술과 문화예술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고 만남의 방식 역시 계속해서 새로워질 테지요. 그렇기에 새로운 시대와 기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예술가의 마음, 생경한 것을 소화해서 내 것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예술가적 태도,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다가올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예술강사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송하나 개인적으로는 비대면 수업의 공감이나 연대감이 대면보다 반드시 덜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화면에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이야기를 연결하며 감상하고, 밴드 등의 다른 소통 창구를 이용해 서로의 작업물과 의견을 올리며 피드백을 주고받는 보다 수평적인 관계 속의 공감과 감동이 수강생들과 이루어졌고요. 강사로서 배워야 하는 부분도 많아졌습니다. 소통에 대한 지극한 바람은 어떤 순간에도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면에서 얻는 대화와 작업은 또 다른 의미겠지요. 아이들과 직접적인 공간에서 넓게 바라보고 마주하고 표정을 읽고 소통하는 것은 분명 미술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대면과 비대면이 지닌 여러 장점들을 파악해 소통하고, 예술의 가능성을 일상에서 다양하게 확장시키는 데 좀 더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송하령 이전의 영상 미디어가 개인의 생각과 취향, 정보를 전달하거나 향유하는 매체였다면, 이제는 그 영역이 교육 분야로 확산되어 교육자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공급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초 성남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위한 교수법> 강의는 대면수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문화예술 분야 선생님들에게 두 종류의 온라인 수업 방법을 알려드리는 강좌였는데요. 온라인 강의의 실시간 전용 프로그램 활용 교육, 다른 하나는 유튜브 플랫폼에 강의 채널과 자신의 교육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내용이었습다. 8회차 수업을 통해 참여자들은 실시간 수업은 물론, 지속 가능한 교육 콘텐츠 제작에도 자신감을 얻었죠. 예전에는 영상 콘텐츠 제작이 일부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다양한 실험과 방식의 발굴·지원·점진 속에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며 비대면 교육 콘텐츠 제작 전문가를 양성해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콘텐츠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예술인 크리에이터의 시대가 다가온 거죠. 콘텐츠를 직접 창작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공유하는 역할을 키워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김율리아 저는 무용을 통해 학습자를 만나고, 제가 하는 대부분의 활동이 함께하는 호흡과 즉각적인 소통으로 구성됩니다. 그

래서 불가피하게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마치 낭떠러지에 선 듯한 막막함을 느꼈어요. 온라인을 통한 만남, 가상세계와 같은 기술의 융합은 하나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지만,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예술 활동을 절대 대체할 수는 없다고 느껴요. 급격한 기술 발전과 온라인 소통 증가가 오히려 직접 대면하는 예술 활동의 희소가치를 더욱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윤용훈 주 활동 분야가 미디어 부문인 제게도 대면과 비대면, 예술과 기술의 융합은 생각보다 쉬운 도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이미 일상 깊숙이 스며들었고, 예술과 기술의 융합이 더 이상 낯선 도전도 아닙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화가 딥드림 Deep Dream 이 고흐와 르누아르 등 유명 화가를 모사한 창작품이 경매에 출품, 판매되는 현실이니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예술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동시에, 번기를 작품으로 출품했던 오래전 마르셀 뒤샹의 논란을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당시 많은 논란에도 그의 번기를 예술로 인정한 결과 현대예술은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미디어아트 등 예술가의 영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술과 융합한 다양한 예술 활동을 시도해왔지만, 문화예술교육 현장이 오랫동안 변화에 대한 도전을 주저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술에 정답은 없기에 교육 현장에서도 다양한 도전과 실험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장기가 탄생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결국 참여자들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나를 만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겠지요.

또 그동안 비대면 수업은 콘텐츠 중심 교육과 실시간 온라인 교육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어왔는데,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 콘텐츠 활용 수업이 대상과의 소통 측면에서 부족함을 깨닫고, 최근에는 대부분의 비대면 교육을 실시간 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원활한 수업 환경을 위한 장비 문제, 또 참여자들의 사용 미숙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에게 익숙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듯합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한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의 연결 시도, 또 비대면 수업이 채울 수 없는 현장 경험을 대면으로 가져오는 동시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만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이어간다면, 봄에 얼음이 녹듯 서서히 관계가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HOPE·REFLECTION·EMPATHY
AND RECOVERY

Q.3

재난의 시대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지닌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서혜윤 불과 3년 전만 해도 미세먼지를 최대의 난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전염병과 전쟁까지 창궐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진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성을 지켜야 하고 자기 생각을 확신할 힘이 필요합니다. 혼란의 시대일수록 인간은 자신에게 집중하며 상상의 즐거움을 잊지 말아야 하고,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며 상생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시간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며, 이것이 바로 문화예술교육의 강력한 힘입니다.

윤용훈 재난 상황은 어떤 면에서는 다른 방식의 예술적 표현과 상상력을 확장시키는 낯선 경험들을 더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문화예술교육이란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이야기를 다양한 예술적 도구로 표현하고 소통하며 공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겠죠. 헤밍웨이가 전쟁을 통해 『무기여 잘 있거라』를 썼듯, 위기

ARTISTIC METAPHOR

의 시대 또한 예술적 메타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문화예술교육이 가진 힘이 아닐까요? 이렇게 생산된 예술 작품은 동시대의 문제에 여러 질문을 던지며 조금씩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회복시켜가리라 믿습니다.

송하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은 그저 도구에 불과한 재료들을 나의 상상을 섞어 하나뿐인 의미 있는 무언가로 탄생시키는 작업입니다. 그걸 보는 사람도 느끼고 공감한다는 것은 스스로도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좋은 작품 하나가 나를 위로해주고 오늘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의미가 되어주는 것이 예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뀌는 것 없이 흘러가는 하루가 재난까지 더해져 더 무겁게 느껴지는 요즘, 오히려 예술을 즐기는 것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다고 느껴요. 예술을 통해 발견하는 사소한 아름다움이 자신의 일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렌즈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분명한 것은 팬데믹이 삶을 할퀴고 간 그 상처를 회복시키는 힘이 분명 예술에 있고, 위험에 맞설 만한 가치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 김율리아

송하령 문화예술교육은 힘겨운 삶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긍정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원천입니다. 우리의 삶은 일과 육아, 입시와 생계, 노후 고민 등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인데, 이 에너지는 언젠가 고갈하기 마련입니다. 그 고갈하는 에너지를 채워주거나 재생산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 활동이고, 그 활동에는 문화예술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는 퇴근길에서 아름다운 음악과 어우러진 멋진 빛의 향연을 보았던 청계천 조명 축제를 떠올려봅니다.

김율리아 예술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무언가를 깨닫기도 하고 내면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타인과 함께하는 예술 작업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소통은 타인에 대한 공감을 이끌고 스스로 안도하게 합니다. 내면 성장과 새로운 방식의 소통 경험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완충 역할을 하며 삶을 보다 유연하게, 풍성하게 만듭니다. 각박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 그 도전이 실패해도 괜찮다는 허구성과 안전함을 담보해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삶의 치유와 회복을 돕고 다시 일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한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하다 보면 자칫 초심을 잃고 공급 중심의 피상적 기획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다시금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것은 언제나 현장이며 언제나 예술입니다. 예술 안에서 모두의 마음이 열리는 순간 감사, 참여자, 매개자 등 역할이나 위치 등은 의미를 상실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고, 예술로써 마음과 마음을 교류하게 하고, 몰입해 진심을 꺼낼 수 있도록 서로의 온기를 전하며, 그 안에서 자생적 치유가 피어나는 장을 마련하는 것. 이 과정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우리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가장 중요한 쓸모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이 가진 자유로움과 치유의 힘을 문화예술교육으로 향유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하루빨리 함께 극복하기를 바라봅니다.

진행·정리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홍보미디어부 과장

지금, 배우러 갑니다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PROGRAM

ARTS &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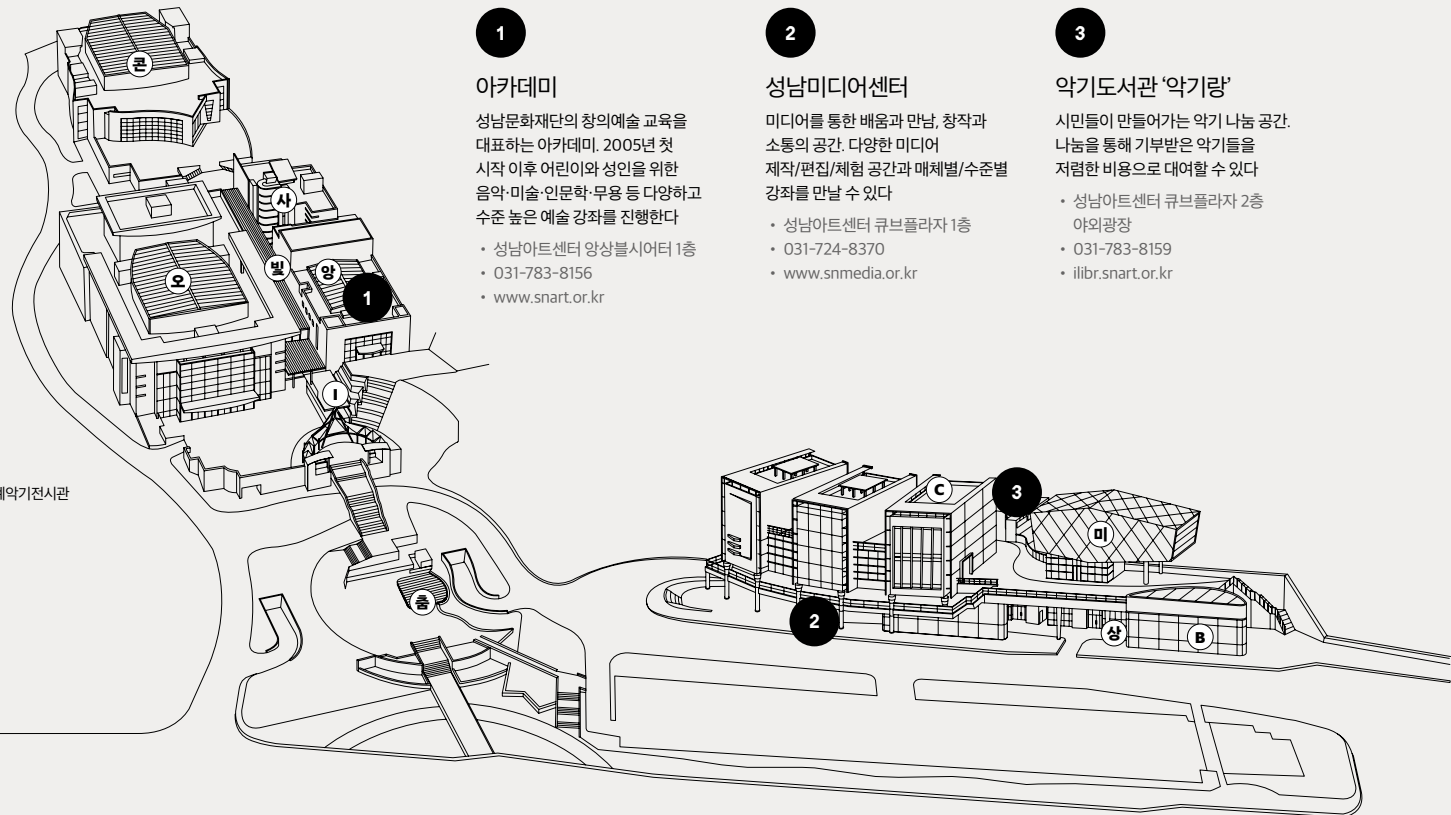
팬데믹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비대면의 일상화, 그리고 장기화다. 기술의 발전 덕에 문화예술 분야 역시 위기 속에서도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역할을 수행했지만, 함께 얼굴을 맞댄 소통과 연결은 우리가 잊지 않고 지켜가야 할 가치이다. 팬데믹 3년 차를 지나고 있는 올봄, 예술의 본질과 가치를 탐구하기 위한 현장 곳곳의 움직임은 그래서 더 반갑다. 긴 적막 속에 지쳐가는 모두의 일상에 위로와 활력을 더해줄, 작지만 특별한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으로 안내한다.





SEONGNAM ART CENTER MAP

- 성남아트센터
 ㉔ 오페라하우스, 세계악기전시관
 ㉕ 콘서트홀
 ㉖ 앙상블시어터
 ㉗ 사무동
 ① 종합안내소
 ㉘ 음악광장
 ㉙ 빛의계단
 ㉚ 미디어홀
 ㉛ 성남큐브미술관
 ㉜ 반달갤러리
 ㉝ 상설전시장



1

아카데미

성남문화재단의 창의예술 교육을 대표하는 아카데미. 2005년 첫 시작 이후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음악·미술·인문학·무용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예술 강좌를 진행한다

-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1층
- 031-783-8156
- www.snart.or.kr

2

성남미디어센터

미디어를 통한 배움과 만남, 창작과 소통의 공간. 다양한 미디어 제작/편집/체험 공간과 매체별/수준별 강좌를 만날 수 있다

- 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 1층
- 031-724-8370
- www.snmedia.or.kr

3

악기도서관 '악기랑'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악기 나눔 공간. 나눔을 통해 기부받은 악기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 2층 야외광장
- 031-783-8159
- ilibr.snart.or.kr

SEONGNAM ARTS CENTER ACADEMY SEONGNAM MEDIA CENTER

우리의 일상에 치유와 성장의 에너지를 더해주는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배움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면 성남문화재단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눈여겨볼 것을 추천한다. 성남아트센터를 비롯해 성남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공간 곳곳에서 전문 예술강사들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을 만날 수 있다.

믿고 배우는 프로그램, 아카데미

우선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의 배움터는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다. 성남아트센터가 문을 연 2005년부터 시작된 아카데미는 오랜 역사만큼 강사진과 커리큘럼에 대한 수강생들의 신뢰도가 높다. 팬데믹 이후 온라인 비대면 강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단절 없는 교육에 노력해온 아카데미는 올해에도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며 꾸준히 안정적인 운영을 모색한다. 학기제로 진행되는 긴 호흡으로, 그만큼 심도 있는 배움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현재 성인 아카데미는 6월까지 1학기 강좌가 진행 중이다. 종합예술의 백미로 일컬어지는 오페라의 세계로 안내하는 황지원의 <오페라 살롱>, 낭만주의 음악의 가장 독특하고 매력적인 장면들을 살펴볼 수 있는 황장원의 <클래식 포레스트>, 세계의 아름다운 도시와 그 속의 문화예술을 만나는 최정주의 <세계의 아름다운 도시예술 산책>, 서양 미술사에 대한 이해와 함께 현대미술 시장의 흐름을 함께 읽을 수 있는 김종현의 <미술 애호가 및 컬렉터 과정> 등, 오랫동안 각 분야의 전문가로 명망을 쌓아온 전문 강사진들과 함께 예술을 조망하는 다양한 강좌가 펼쳐진다. 5월부터는 실시간 온라인미술 강좌가 개강한다. 감성수채화, 여행드로잉, 오일파스텔의 실기 강좌와 미술인문특강 아트&아트 강좌를 선보인다.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 아카데미도 STEAM¹⁾ 창의 강좌를 기본으로 한 1학기 정규 강좌를 진행한다. 창의 미술과 창의융합코딩, 음악 실기 강좌를 중심으로,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 비대면과 대면을 혼한 온오프on-off 융합 교육이 각 장점을 살려 흥미로운 배움의 장을 펼친다.

강좌들은 STEAM 교육의 취지를 살려, 단순 실기가 아닌 창의력과 상상력을 일깨우는 커리큘럼으로 구성했다. <아름다움의 세계: 미술사 연대기>에서는 미술사 속 아름다움의 세계와 그

세계를 창조한 당대 인류의 시각을 이해하고, <상상스튜디오>에서는 드로잉 속 명도와 그라데이션에 대한 이해 속에 자신만의 감성과 표현을 발견하며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키운다. <Computational Thinking>에서는 초등 교과와 연계한 엔트리 코딩, 장르융합형 아트코딩,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한 피지컬 컴퓨팅 학습 등을 통해 논리적 사고와 과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른다. 기악 실기(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강좌는 비대면을 기반으로 하되 월 1회 대면 강의를 병행, 맞춤형 1:1 티칭으로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꼼꼼히 보완한다. 악기를 배우고 싶은데 당장 악기를 구입하기가 부담된다면, 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에 위치한 악기도서관 <악기랑>의 대여 시스템을 추천한다. 시민들이 기증한 악기로 이루어진 이곳에서는 현악기, 관악기, 국악기 등 다양한 악기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할 수 있다. 자신의 취향과 적성이 아직은 아리송한 기악 입문자에게 악기 구입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방법이다.

미디어의 기본 지식부터 최신 트렌드까지

유튜브, 제페토, 메타버스... 핫하다는 요즘 트렌드를 따라잡고 싶은 이들이라면 성남미디어센터를 주목해보자. 성남아트센터 내 큐브플라자에 위치한 성남미디어센터는 미디어를 매개로 한 다양한 강좌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마음만은 이미 골드 버튼의 유튜브 크리에이터이지만,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난감하다면 취향과 스타일에 맞는 유튜브 강좌를 찾아보자. 일상 브이로그 스타일을 추구한다면 <기초부터 실전까지 꾸준히 성장시킬 유튜브 채널 만들기>를 추천한다. 총 10차시에 걸쳐 촬영과 편

1) 과학 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 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인문-예술(Arts), 수학(Mathematics)의 머리글자를 합해서 만든 용어



집, 저작권 등 제작 실무, 채널 브랜딩과 아이템 선정 등 콘텐츠 부문까지 아우르며 초보자가 궁금해할 핵심 포인트를 알려준다. 좀 더 고퀄리티의 영화 느낌 영상을 제작하고 싶다면 <미러리스 카메라를 활용한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살펴보자. 미러리스 카메라의 동영상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브이로그, 리뷰 콘텐츠 등 다양한 콘셉트의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배울 수 있다. 트렌드를 따라잡는 것도 놓칠 수 없다면 최근 가장 핫한 키워드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강좌도 있다. <제페토로 영상 만들기>는 메타버스의 개념과 실제 활용법, 메타버스 앱 중 하나인 제페토로 자신만의 유튜브 채널 인트로 영상을 만들어보는 시간이다. 그 밖에도 미디어의 기초가 되는 사진 강좌,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 등 편집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강좌, 요즘 다시 인기 부활 중인 라디오/팟캐스트 강좌 역시 미디어에 대한 폭넓은 전방위적 지식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술로 꾸는 꿈,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새롭게 주목할 공간도 있다. 성남시 수정구의 옛 영성여중 본관 건물을 리모델링, 2020년 12월 개관한 전국 최초의 지역 거점형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성남꿈꾸는예술터'다.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지원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역 기관·단체와 교류하고 협력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발굴과 양성, 예술교육가들의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연구·개발·시연 등을 성남꿈꾸는예술터를 거점으로 진행한다.

생애주기별 예술 통합교육 전용공간에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과정 중심, 창작 중심으로 함께 어우러지며 학교·지역사회·예술가가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4월 개강, 현재 접수가 진행 중인 상반기 교육은 유아부터 실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교육이 기다린다. 연극과 음악, 공예, 도예 등 면면도 다채롭다. 45세 이상 신중년을 위한 연기와 낭독극 프로그램 <신중년: 나도 Acting해!>에서는 손튼 와일더의 <우리 읍내>를 소재로 텍스트 분석과 역할 몰입을 통해 작품에 녹아든 일상과 죽음, 삶에 대해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재인식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답답한 거리두기 일상 속에서 작은 힐링을 위한 강좌들도 있다. 식물과 도예에 관심이 있다면 <나만의 작은 정원 도예촌>을 눈여겨보자. 행잉식물과 수중식물의 세계, 식물 종류와 토분 공합, 토분에 식물 심기와 장식하기까지, 자신만의 작은 정원을 만들어가는 커리큘럼이다. '숲'과 '쉼'을 주제로 한 또 다른 성인 대상 프로그램 <숲 For+Rest, For+Art>는 꿈꾸는예술터 인근 숲을 찾아 풍욕과 숲멍을 즐기며 자연물을 수집하고, 여기서 받은 영감과 재료를 바탕으로 숲을 품은 나만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생태예술 겸 도자 프로그램이다. 손재주에 자신이 있다면 <목조각 예술로 힐링> 강좌도 놓치지 말자. 목조각의 기능과 기술, 재료를 학습하며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예술작업을 통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성남문화재단, 달달그림책연구소, 참여 예술강사들이 유아 맞춤형으로 협력 기획한 특화 프로그램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위례 스토리박스

FOR+REST, FOR+ART



도 주목할 만하다. <꼬물꼬물~ 선으로 놀아요>는 선과 끈으로 거미줄 세상을 만들고, 종이테이프로 우리 동네를 만들어 길을 따라 걷고, 빨대 블록으로 입체 조형물을 만들기도 한다. 그림책 연계 예술놀이 프로그램 <그림책이랑 놀자! in light>는 그림책을 읽고서 나만의 색깔을 찾고, 빛과 함께 그림자놀이와 야광놀이를 이어가고, 즉흥 인형극을 펼치며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초등 저학년에게 음악에 대한 흥미를 일깨워주고 싶다면 <뮤키즈? 뮤직 온 더 키즈>가 제격이다. 작사·작곡은 물론 자신이 만든 노래를 직접 노래하고 스튜디오 녹음까지 진행해본다. 아이들의 음악 수업이 내심 부러웠던 어른들을 위한 반가운 강좌도 있다. 마음 한구석에 노래와 연기에 대한 열망을 간직한 성인이라면 <Song of My Story>에 도전해보자. 발성, 대사, 가창 등 뮤지컬 교육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생 중 한 대목을 연기와 노래로 풀어간다. 누구나 스스로의 인생 속 주인공이라는 전제 아래, 저마다의 삶을 돌아보며 대사와 연기와 노래를 익히는 과정에서 삶의 조각을 뮤지컬의 한 장면으로 만들어간다.

내가 살아가는 도시의 역사와 생태, 곳곳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경기시민예술학교 성남캠퍼스를 추천한다. '일상 속의 예술'이라는 기치 아래 매년 진행 중인 경기시민예술학교는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도시의 행복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나'를 찾아가는 예술교육이다. 경기시민예술학교 성남캠퍼스의 예술교육은 삶 속에서의 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술적 시선을 가지며 일상 속 지속적인 실천을 목표로 한다. 동네 곳곳에서 마주치는 사소한 풍경들, 이웃들을 찬찬히 관조하며 '나'와 '내가 사는 도시'를 다양한 예술적 방식으로 체험하고 공감하고 소통한다. 교육은 5월 말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홈페이지, 경기시민예술학교 성남캠퍼스 홈페이지를 통해 만나 볼 수 있으며, 올해는 일반시민과 매개자로 이원화하여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의 스며듦과 간접적 확산을 추구한다.

새로운 일상을 꿈꾸다

은퇴 전후의 시니어들이라면 위례 스토리박스의 위례인생학교(교장 백만기)에서 인생 2막을 설계해보는 것도 좋겠다. 소묘와 우쿨렐레, 캘리그래피와 같은 예술 강좌부터 역사와 심리학 등 인문학 강좌, 어학 강좌와 건강 강좌는 물론 금융투자와 재무관리 등 실용 강좌까지 다양한 배움을 즐길 수 있다. 특별한 점은 이곳이 시니어들이 그동안 축적해온 서로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장이라는 점이다. 강의 분야에 따라 강사가 학생이 되기도 하고 학생이 강사가 되기도 한다. 반평생에 걸쳐 쌓아온 저마다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따뜻한 유대와 연대, 공감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배움을 통해 인생 2막의 장이 펼쳐진다.

문화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것

팬데믹이 가져온 긴 단절과 거리두기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스스로가 지치지 않도록 견딜 수 있는 힘이다. 이를 위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곳에서 예술을 매개로 온기와 진심을 나눌 타인과의 교류는 그래서 더욱 간절하다. 성남의 곳곳에서 마주한 예술의 경험이 일상을 회복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각자의 삶에서 새로운 희망을 키워내는 시작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홍보미디어부 과장



상상스튜디오 _ 관찰과 표현의 CREATIVITY 비대면

KIDS미술사의 예술놀이 온-오프 병행

디자인 씽킹 I _ 그림책 스토리 타임 비대면

디자인 씽킹 II _ 현대미술 THINK ABOUT 비대면

디자인 씽킹 III _ NATURE N 크래프트 온-오프 병행

창의융합코딩 비대면

음악 실기 _ 바이올린 · 첼로 · 플룻 · 클라리넷 온-오프 병행

성악 · 딕션 비대면

I 개 강 I 2022. 4. 12(화) (강좌별 · 요일별 개강)

I 대 상 I 미취학(6~7세), 초등학생

I 수강료 I 강좌별 상이함 (재료비 별도)

I 접 수 I 2022. 3. 29(화) 10:00 ~

I 문 의 I 문화예술교육부 아카데미

031-783-8156 (평일 10:00~17:00 _ 주말, 공휴일 제외)

※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 (www.snart.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 I E W



Kyoungjin Kim © Universal Ballet

26 **미리보기 1**
유쾌하고 매혹적인 사랑의 서사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

28 **미리보기 2**
4월의 봄, 양상블이 꽃피다
아티스트 인사이트 시리즈 II
아오이데 트리오

30 **미리보기 3**
영국의 오르페우스, 퍼셀
마티네 콘서트 4월

32 **미리보기 4**
700년을 이어온 이야기에 담긴 영원
연극만원 <회랑기>

유쾌하고 매혹적인 사랑의 서사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



Kyoungjin Kim © Universal Ballet

사랑 최대의 적?

돈키호테의 소설 속 답변은

“배고픔과 끝날 줄 모르는 궁핍함”이다.

자타 공인 이상주의자의 소견이라기엔

꽤 현실적이어서 의외롭다.

결국, 사랑이 낳은 결혼을 가장 훌륭한

목적으로 꼽긴 한다.

발레 <돈키호테>의 결론은

이런 노*기사의 가치관을 매우 담백하게

따라간다.

당신과 함께라면 주린 배도 기쁨이라! 아름다운 키트리네 망설임 없이 귀족의 구애를 뿌리치고 가난한 청년 바질을 택한다. 이 철부지 커플의 사랑의 도피엔 희극 발레다운 위트가 가득하다. 남자 주인공 바질은 급기야 신부 아버지의 승낙을 받으려 자살 소동을 벌이는데, 이런 전개엔 ‘사랑은 전쟁과 같아서 적을 이기기 위한 속임수가 흔쾌히 인정된다’는 돈키호테의 의견이 십 분 반영됐다.

그런데 이 히트작의 공연 초기엔 ‘진짜 주제’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 이에 얽힌 사연은 20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를 뒤흔든 이 시기의 가장 역사적인 사건은, 요즘 안타까운 침공 소식이 들려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참여했던, 소비에트 연방의 탄생이다. 사회 체제가 바뀌며 몸시 스펙터클한 변화가 있었던 이때, 러시아 발레계 역시 새 시대에 도움이 되는 선전 예술을 하라는 압박에 시달렸다. 이리저리 치이는 것이 마치 강풍에 속절없이 휘날리는 빨래였다. 인민을 계도할 혁명 이데올로기가 소련 예술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었다.

발레 <돈키호테>를 만든 알렉산더 고르스키Aleksandr Gorskii는 이 역할을 가장 적절히 수행한 안무가로 꼽힌다. <돈키호테>의 원안무자는 황실극장 수석 발레마스터 마리우스 프티파였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공연되는 버전은 고르스키가 개정한 프티파-고르스키 버전이다.

우선 프티파는 1869년 볼쇼이극장 초연부터 줄거리를 ‘돈키호테의 모험’에 맞추었다. 주인공이 돈키호테인 것이 뭐가 문제인가 싶겠지만, 이 노기사가 조연으로 밀려나면서 작품이 살아남

UNIVERSAL BALLET DON QUIXOTE

았으니 중요하다. 구소련의 혁명 세력은 낭만발레를 싫어했다. 차르(황제)를 비롯한 기득권층이 팔자 좋게 즐기던 내용이었고, 환상 자체를 나약한 것으로 여기기도 했다. 죽어라 일하는 프롤레타리아들에게, 예컨대 귀신과 왕자가 한가롭게 춤추는 <지젤>은 허황되고 무가치한 것이었다. 돈키호테란 인물도 마찬가지, 그는 땅을 가진 지주 계급인데다가 기사도 로맨스 소설에 심취한 한심한 노인이다. 공산 혁명의 사상과는 배치되는 인물이 계속 주인공을 맡았다면 이 발레는 구소련의 공연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고르스키는 소련이 아직 탄생하기 전인 1900년, 프티파의 작품을 재안무해 볼쇼이극장에 올린다. 당시 모스크바에서는 후에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선봉이 되는 연출가 콘스탄틴 스타니슬랍스키Konstantin Stanislavsky가 활동하고 있었다. 고르스키는 그의 영향을 받아 리얼리즘 발레를 창시한다. 인물의 사실적인 내면 표현을 강조하는 동시에, 군무의 역할을 중시하며 구도적으로는 대칭을 타파했다. 다루는 내용도 현실에 있을 법한 것으로 사실성과 개연성을 높였다. 이에 그의 <돈키호테>는 구소련의 양대 발레단 - 볼쇼이발레단과 키로프발레단(현 마린스키발레단) - 에서 지속적으로 공연될 수 있었다. 기존 발레들이 소련에서 자취를 감춘 것과는 대조적이다. 무엇보다도 고르스키는 예술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의 밸런스를 찾으려 했다. 선전 예술이 아닌, 순수한 예술성을 인정받아 전 세계로 <돈키호테>가 퍼져나갔으니 그의 업적이 작지 않다.

고르스키는 주인공으로 가난한 이발사 바질과 선술집 딸 키트리네를 낙점했다. 반면 돈키호테는 지나가는 여행객 정도의 비중인데, 여주인공 키트리를 자신이 사랑하는 둘시네아로 착각한다. 키트리 역할의 무용수가 꿈속의 둘시네아를 1인 2역으로 추는 것도 고르스키의 유산이다. 프티파가 별도의 배역으로 ‘둘시네아의 마법의 정원’ 장면을 구성해 환상적 면모를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고르스키는 이것을 ‘돈키호테의 꿈’이라 못 박는다 - 이 시기 발레들은 혁명 세력이 싫어하는 환상 대신 꿈이라는 설정을 사용했다. 이 장면의 핵심인 드리아드(숲의 요정) 역은 고르스키가 새롭게 창조한 배역이다. 드리아드와 큐피드가 돈키호테를 안내하며 이 장면의 가장 주요한 춤인 ‘드리아드 베리에이션’ ‘큐피드 베리에이션’을 춘다. 또한 비중이 줄어든 허구의 둘시네아는, 아예 키트리가 그 춤을 추면서 보다 현실적이 된다. 한편 주인공의 사랑을 방해하는 귀족 가마슈는 매우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캐릭터성이 강화됐다. 이 땀방이 귀족을 궁핍한 두 연인이 이겨내면서 ‘프롤레타리아의 승리’가 암시되는 통쾌함이 배가된다.

오는 5월 성남아트센터를 찾는 유니버설발레단의 <돈키호테>는 러시아 마린스키발레단이 추는 고르스키 버전을 들여온 것이다. 유니버설발레단 예술감독이자 마린스키발레단의 전성기를 이끈 올레그 비노그라도프가 1997년 직접 들여와 안무를 개정했다. 지휘자 니콜라 브로쇼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구 코리안심포니)가 음악을 책임진다. 예술은 살아 숨 쉬는 것이어서, 이제 <돈키호테>의 주제는 ‘젊은 사랑의 승리’로 해석된다. 정치적 이념이 아닌 정열적 스페인 춤의 향연에 어깨가 들썩여진다. 게다가 유니버설발레단은 외국인 단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푸른 눈의 무용수들이 우리 댄서와 어우러지는 광경은 해외로 나가기 어려운 요즘, 스페인에 와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이국적이고 유쾌한 여행이 될 것이다.

글 윤대성 월간 <댄스포럼> 편집장

preview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

5월 7일(토)-8일(일) 오후 3시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031-783-8000





4월의 봄, 앙상블이 꽃피다

아티스트 인사이트 시리즈 II :
아오이데 트리오

무대를 꽃 피우는 것은 ‘음악’만이 아니다.
성남아트센터가 올해 더욱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아티스트 인사이트 시리즈에는
‘음악’과 함께 ‘이야기’가 존재한다.
4월 29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아티스트 인사이트 시리즈 두 번째 무대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앙상블을 자랑하는
허승연(피아노), 클라리디 사하치(바이올린),
사샤 노이스트로프(첼로)로 구성된
아오이데 트리오의 음악으로 채워진다.

팬데믹은 무서운 위력으로 세상을 강타했다. 아쉽게도 누군가와 함께 이뤄내는 기쁨들을 앗아 갔고 음악계도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만 했다. 매서운 겨울 끝에 비로소 시작된 봄, ‘희망’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4월, 반가운 공연 소식이 전해졌다. 2022년 ‘아티스트 인사이트 시리즈’로 선보이는 아오이데 트리오AOIDE Trio 무대다. 좀 더 깊이 있게 예술가들을 집중 조명하며 다양한 각도, 폭넓은 시선으로 청중을 찾아가는 ‘아티스트 인사이트’는 무대 위에서 다채로운 내면의 음악 풍경들을 채워갈 예정이다.

이날 아오이데 트리오의 드보르자크의 <피아노 트리오 4번 E단조 Op. 80> ‘뚝키’ 중 1·5악장, 유운의 <바이올린과 첼로 그리고 피아노를 위한 세밀화 Op. 18a, 24a> 중 3·4번, 브리지의 <피

ARTIST INSIGHT: AOIDE TRIO

아노 트리오를 위한 세밀화> 중 7번,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중 ‘항구의 봄’, 멘델스존의 <피아노 트리오 1번 D단조 Op. 49>를 연주한다.

실내악 전문가이며 피아니스트이자 스위스 취리히 음악원 종신 부총장인 허승연,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악장 및 루가노의 이탈리아-스위스 음대 교수인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리디 사하치Klaidi Sahatçi, 러시아인 첼리스트이자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부수석인 사샤 노이스트로프Sasha Neustroev가 함께하는 앙상블 그룹 아오이데 트리오의 깊이 있는 음악 해석과 아름다운 음색, 도전적인 무대로 그동안 많은 청중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유럽 각지의 언론과 음악 평론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아왔다. 특히 무대와 교단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가르치며 끊임없이 연구하는 이들의 폭넓은 음악관은 자신들만의 독보적인 세계와 카리스마 넘치는 연주로 주목받았다. 이들은 솔리스트, 실내악 연주자로서만이 아니라 훌륭한 교육자로도 다양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펼쳐왔다. 피아니스트 허승연은 스위스 취리히 음악원 종신 부총장으로 활동하면서 스위스를 중심으로 특별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활발히 참여해왔고, 리옹 국립 오케스트라 솔로 바이올린 연주자로 활동한 후 이탈리아와 스위스 오케스트라 부악장, 취리히 체임버 오케스트라 악장, 라 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악장을 역임한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리디 사하치 역시 2012년부터 루가노의 이탈리아-스위스 음대Conservatorio della Svizzera italiana 교수로 재직하며 국내외에서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하는 등 후학 양성에 열정을 기울이고 있다. 로스트로포비치 국제 콩쿠르,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등 유수의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 및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된 첼리스트 사샤 노이스트로프는 로린 마젤과 함께한 슈만 공연과 데이비드 진먼 지휘 마스터클래스에서 선보인 블로흐의 <술레모>가 큰 사랑을 받았다.

2016년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모토로 창단한 이후 취리히 톤할레의 대표적인 앙상블로 주목받아온 아오이데 트리오의 스위스, 스페인, 알바니아, 포르투갈 등 유럽 청중의 관심을 시작으로 철학적인 베토벤 트리오, 드라마틱한 라흐마니노프 트리오, 실험적인 쇼스타코비치 트리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에서 확고한 음악적인 커리어를 쌓아왔다. 특히 러시아 풍의 스위스 작곡가 유운Paul Juon의 트리오 작품은 섬세함과 웅장함이 공존하는 아오이데 트리오만의 앙상블과 어우러져 연주 때마다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허승연은 2018년 아오이데의 첫 내한 연주 전 인터뷰에서 “아오이데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음악의 여신으로, 함께 연주하는 두 사람은 훌륭한 연주자일 뿐 아니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주는 좋은 친구들”이라고 말하며 앙상블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

“음악의 길은 작은 우주”라고 말했던 허승연의 음악 친구들 ‘아오이데’가 우리에게 선사할 우주는 어떤 모습일까? 향기로운 봄바람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4월 음악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넘겨본다.

preview

아티스트 인사이트 II :
아오이데 트리오

4월 29일(금) 오후 7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글 국지연 음악 칼럼니스트

영국의 오르페우스, 퍼셀

마티네 콘서트 4월

성남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의 2022년 주제는 ‘영국 음악’이다. 대중음악 분야에서 영국은 아직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지만, 클래식 음악에서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친근한 음악, 즉 빈 고전파부터 낭만주의 시대에 영국 음악은 사실상 침묵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때 독일 사람들은 영국을 가리켜 ‘음악 없는 나라Das Land ohne Musik’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시야를 조금만 넓혀서 19세기를 벗어나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보인다. 영국은 클래식 음악에서도 20세기 내내 공연 시장과 음반 시장을 이끈 선두 주자였다. 지금도 런던 무대를 정복하지 못한 연주자는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중세 시대부터 르네상스 시대까지 영국은 대륙 음악가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음악의 나라’였다. 탈리스T. Tallis와 버드W. Byrd의 장엄하고 화려한 폴리포니 음악과 소박한 민요가 공존했던 이 빛나는 시대는 영국 음악이 잠시 침묵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길었다. 그런 의미에서 19세기 후반부터 영국 음악의 힘찬 부활을 이끈 에드워드 엘가의 음악을 다룬 첫 공연에 이어 4월 마티네 콘서트가 헨리 퍼셀Henry Purcell, 1659~1695로 향한 것은 적절하다. 올해의 부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부터의 음악 Music from the Fairest Isle’은 바로 퍼셀의 저 유명한 노래에서 따온 것이 아닌가. 동시대인으로부터 ‘영국의 오르페우스Orpheus Britannicus’라 불렸던 헨리 퍼셀은 -독일에서 귀화한 헨델을 제외하면- 영국 바로크 음악의 가장 아름다운 빛이 있었다. 그가 서른여섯 살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그 빛은 갑자기 꺼지고 말았다. 퍼셀이 태어나서 활동했던 17세기 중후반은 영국 역사의 또 다른 격변기였다. 16세기 헨리 8세



MATINÉE CONCERT



시대에 종교개혁으로 수도원 수백 개가 일거에 없어지면서 교회음악 전통이 단절되었다면, 17세기에는 오랜 내전 끝에 권력을 잡은 공화정이 금욕적인 청교도 정신을 강요하면서 세속음악이 큰 타격을 입었다. 가령 1642년에는 런던의 모든 극장이 강제로 문을 닫았는데, 이때 셰익스피어가 활동했던 극단King's Men과 저 유명한 글로브 극장Globe Theatre도 모두 사라졌다. 그 후 올리버 크롬웰이 세상을 떠나고 1660년에 왕정복고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극장이 생기게 되었는데, 1659년에 태어난 퍼셀은 이때 첫 돌도 채 안 된 갓난아기였다. 그런 의미에서 퍼셀은 억눌렸던 대중의 욕구가 분출하면서 다시 살아난 영국 궁정음악과 극장음악의 마지막 계승자였다. <아서 왕King Arthur> <요정 여왕Fairy Queen> <디오클레시아니Dioclesian> 등은 바로 이 시대, 오랜 억압 끝에 다시 활력을 찾은 영국 특유의 세미-오페라다. 영국에서는 예부터 연극에 춤과 노래, 화려한 볼거리와 특수효과 등 다양한 요소를 엮어서 함께 즐겼는데, 이번 공연에서는 카운터테너 정민호의 노래와 함께 퍼셀 세미-오페라의 다양한 기악곡들을 감상할 수 있다. 여기에 20세기 작곡가 벤저민 브리튼이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에서 주제 선율로 써서 더욱 유명해진 <압델라자르Abdelazar> 중 ‘론도’를 곁들인 것도 그럴듯하다.

반면 <디도와 아에네아스Dido and Aeneas>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작품이다. 한 시간 남짓한 짧은 길이에 편성도 작지만 본질적으로 완전한 오페라이며, 영국 고유의 극음악 전통은 물론 찰스 2세가 망명지 프랑스에서 가져온 프랑스 음악 비극 형식과 새로운 이탈리아 음악의 요소까지 숨어 있는 작품이다. 퍼셀이 이 미니어처 오페라에 당대 음악의 거의 모든 양식과 기법, 영어의 풍부한 표현력, 그리고 강렬한 감정을 모두 담아낸 것은 정말 경이롭다. 바로크 오페라가 거의 모두 잊혔던 19세기와 20세기 초에도 <디도와 아에네아스>만은 홀로 빛을 발하며 사랑받았고 그 인기는 지금도 여전하다. 마티네 콘서트에서는 한 곡만 들지만, 이 디도의 라멘트야말로 전곡의 핵심이자 영혼이며, 수많은 바로크 시대의 라멘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한 곡이다. 극음악과 더불어 마티네에서는 퍼셀의 가장 내밀한 음악도 만날 수 있다. 퍼셀이 쓴 비올 환상곡과 소나타는 저마다 옛 음악과 새로운 음악을 향하고 있어서 양식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어느 곡이든 음악을 연주하는 이들의 친밀한 관계가 핵심이다. 심지어 <한 음표 위의 환상곡Fantasia upon One Note>에서는 테너 비올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음만을 연주하는데, 악기를 연주할 줄 모르는 친구와 함께 연주하기 위한 곡이 틀림없다. 카메라타 안티와 서울은 당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매력적인 소품이자 영국과 이탈리아 음악 전통이 잘 어우러진 <그라운드에 바탕을 둔 3성부Three Parts upon a Ground>를 들려준다. 여기서 ‘그라운드’란 일정한 오스티나토ostinato 베이스 리듬에 바탕을 둔 변주곡을 일컫는 말로, 퍼셀은 그라운드의 대가였다. 보통은 바이올린으로 연주하지만 리코더로도 연주할 수 있는데, 이번 연주회에서는 영국풍의 목가적 콘소트consort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헨델은 언젠가 자기 작품을 칭찬하는 사람에게 “퍼셀이라면 더 잘했을 겁니다”라 말했다고 한다. 결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던 헨델의 이 말은 퍼셀이라는 음악가가 너무나 짧은 생애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제 ‘영국의 오르페우스’를 만날 시간이다.

글 이준형 음악칼럼니스트

preview

마티네 콘서트 4월

4월 21일 (목) 오전 11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031-783-8000



700년을 이어온 이야기에 담긴 염원

연극만원 <회란기>



THE CHALK CIRCLE

화제의 연극들을 부담 없는 가격으로 선보이는 성남아트센터 연극만원 시리즈가 4월, 극공작소 마방진의 따끈따끈한 신작 <회란기>를 소개한다. 공연을 보기 전, ‘두 여인의 한 아이 다툼’이라는 오래고도 익숙한 소재를 담고 있는 이 작품의 뿌리와 의미를 되짚어보고 성경과 잡극, 서사극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형태를 달리하며 반복되어온 이야기의 주제와 해석에 대해 미리 살펴본다.

원나라 시대 극작가인 이잠부가 지은 <회란기>의 원제는 <포대제지감회란기包待制智勘灰蘭記>로 ‘포 대제가 지혜롭게 석회 동그라미로 판결을 내린 이야기’라는 뜻이다. 이 작품은 13세기 당 시 중국에서 전해지던 ‘두 여인의 한 아이 다툼’ 모티프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사실 이는 동서양 여러 문화권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전해 내려온 친숙한 이야기 중 하나다.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가 친모라고 우기는 상황에서 현명한 판관(혹은 왕)이 아이를 똑같이 반으로 자르라고 시키거나 양쪽에서 잡아당기라고 명령한 뒤, 차마 아이에게 해를 입힐 수 없어 이를 행하지 못하는 여인을 친모로 인정했다는 이 모티프는 분명 어디선가 한 번은 들어본 이야기일 것이다.

실제로 동서양 고전에 걸쳐 이 재판과 판결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반복, 변주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구약성경-열왕기>편에 나오는 솔로몬왕의 일화를 들 수 있다. 이 판결로 인해 솔로몬왕은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 중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왕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슬람 문화권의 경전인 <코란>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고 한다. 다만 <성경>이나 <코란>은 본질적으로 종교 경전이기 때문에, 사건의 우여곡절이나 왕의 명판 결보다는 이처럼 슬기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왕에게 지혜를 내려준 신에 대한 예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중국에서도 이잠부 이전에 이미 인도에서 전해진 불경이나 민담을 통해 이 ‘두 여인의 한 아이 다툼’ 모티프가 널리 전해졌다고 하니, <회란기>는 이잠부가 독자적으로 생각해낸 창작물이라기보다는 예로부터 구전되던 이야기를 당시 유행하던 잡극 형식에 맞춰 쓴 작품으로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정확히 어떤 이야기가 직접적인 영감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잠부가 이 모티프에 매력을 느껴 자신만의 해석으로 새로 썼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회란기> 속에 드러난 사회 비판

성경이나 코란, 인도의 왕 이야기 등의 민담과 설화가 보통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다투는 사연이나 곡절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판관의 명판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비해, 이잠부의 <회란기>는 아이의 친모이자 이야기의 주인공인 장해당을 내세워 그녀의 파란만장한 인생과 억울한 사연을 굵이굵이 풀어내면서, 사건이 일어난 배경과 내막을 상당히 상세하게 알려준다. 일종의 프롤로그라 할 수 있는 설자楔子에서부터 해당의 어머니인 노파가 등장해 집안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생이 되어야 했던 해당의 기구한 운명을 읊고, 이어 기생이 된 해당이 동네 유지인 마원외와 사랑에 빠져 둘째 부인으로 들어가기까지의 사연을 들려준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일종의 막이라 할 수 있는 4개의 절折에서 이어진다. 마원외에게 시집간 해



LI QIANFU, BRECHT, SUN-WOONG KOH



preview

연극만원 <회란기>

4월 9일(토)~10일(일)
14시, 18시
성남아트센터 양상블시어터
031-783-8000

인도 자식조차 버린 채 황급히 줄행랑을 치자 마을에는 어린아이 혼자만 남게 되었다. 아이를 불쌍히 여겨 친자식처럼 키운 하녀 그루셰와 총독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뒤늦게 아들을 되 찾으려는 총독 부인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이를 마을의 재판관 아즈닥이 백목원을 통해 해결 한다. <회란기>에서 해당이 실제로 아이의 생모였던 것과는 달리, <코카서스의 백목원>에 등장하는 그루셰는 아이의 생모는 아니다. 하지만 브레히트는 이 이야기를 자신의 관점으로 다시 쓰면서 아이를 실제로 낳았든 아니든, 아이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어머니라는 해석을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극중극 메시지는 극의 외부를 감싸고 있는 코카서스 계곡 분쟁과도 이어지면서, 토지 또한 단순 소유권자인 지주가 아니라 실제로 땅을 일구고 가꾸는 사람들의 몫이 되어야 한다는 브레히트의 생각을 강조하는 하나의 장치로 기능한다.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에 담긴 염원

사실 그동안 국내 연극계에서는 브레히트의 존재감과 영향력이 훨씬 컸기에, <코카서스의 백목원>이 원작인 <회란기>보다 훨씬 널리 알려지고 자주 무대에 올랐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잡부의 원작을 고선웅이 각색, 연출한 극공작소 마방진의 <회란기> 공연은 이 오래되고 유명한 이야기의 원형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선하고 의미 있는 시도다.

고선웅은 원작의 인물과 사건,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거는 잡극 형식의 묘미는 그대로 살리되, 특유의 리드미컬하고 압축적인 말맛을 살려 극을 빠르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간다. 간소하고 심플한 무대와 굳이 시대를 반영하지 않은 현대적인 의상은 이 이야기가 700년 전 중국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동시대성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도 <회란기>를 풍성하고 재미있는 공연으로 완성하는 것은 역시 극공작소 마방진 배우들의 단단한 존재감과 찰떡같은 호흡이다. 주조연 할 것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매력과 개성을 충분히 드러내면서도 전체적인 조화와 앙상블이 하나의 완성된 세계를 이루는 극단 특유의 기운과 에너지가 작은 무대를 가득 채우며 극을 힘차게 이끌어 나간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끊임없이 반복되고 변주되며 이어져온 ‘두 여인의 한 아이 다툼’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이토록 널리, 오랫동안 읽히고 전해져온 것은 ‘모성’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많은 이들이 말한다. 물론 위대한 모성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깊고 따뜻하게 울리는 주제이지만, 이 이야기에는 이와 함께 명판관의 판결과 처벌로 대변되는, 사회 부조리에 대한 민중의 울분과 정의로운 법 집행을 향한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 <회란기>가 7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생명력을 이어오고 심지어 오늘날 다시 봐도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그 긴 세월 동안 여전히 우리 사회가 부조리와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거짓이 횡행하고 약자가 고통받는 세상으로부터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내고, 공정정대하게 법과 질서를 집행하는 명판관에 대한 민중의 염원이 바로 이 이야기를 이토록 오랫동안 유효하고 흥미로운, 보편적인 이야기로 남게 만든 것이다.

글 김주연 연극 평론가
사진 제공 극공작소 마방진

당은 아들 수량을 놓고 행복하게 살지만 이를 고깝게 보던 마 부인의 질투와 음모로 역경에 처한다. 정부媿夫와 함께 마원의 죄를 독살한 마 부인은 남편 살해죄를 해당에게 뒤집어씌우고, 마 씨 가문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유일한 후계자인 수량 역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한다. 기가 막힌 해당은 관아에 가서 이를 고 하지만, 이미 뇌물로 증인과 관리들을 매수해 놓은 마 부인의 계략에 빠져 고초를 겪게 되고, 결국 남편 살해와 아이 유괴라는 죄를 뒤집어쓴 채 개봉부로 호송된다.

상당히 오래전에 쓰인 드라마임에도 이 장면에서는 작가 이잡부의 변죽이는 재능을 엿볼 수 있다. 그저 평범하고 선량한 여인인 해당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고통받는 과정을 통해 작가는 당대의 부패한 지방 관리들과 부조리한 사법 체계, 간신배와 악인이 들끓고 욕망에 눈이 멀어 사람의 도리를 잃어버린 세태를 날카롭게 비판한다. 특히, 특별한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책임하고 태만하게 소송을 처리하는 마을 태수와 너무나 쉽게 매수당하는 호송관에 대한 묘사는 당대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 의식을 또렷이 드러낸다.

드라마틱한 반전과 명판결

마 부인의 철두철미한 계획과 부패한 관료 체계로 인해 도저히 벗어날 길 없는 수렁에 빠진 듯 보였던 해당의 운명은 마지막 제4절에서 드라마틱한 반전을 맞이한다. 이 반전을 만들어낸 주인공은 바로 개봉부 부운 포증包拯, 우리에게 ‘판관 포청천’이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청렴결백한 명판이다. 중국 송나라 때의 실존 인물인 포증은 부당한 세금을 없애고 부패한 정치가들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청렴결백한 관리의 상징으로 널리 회자되었다. 위낙 민중들에게 인기가 많다 보니 사후에도 그를 주인공으로 하는 수많은 문학 작품이 등장했고, 지금도 중국에서는 <판관 포청천> <신 포청천> <칠협오의> 등 그의 판결을 소재로 한 수많은 드라마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방영되고 있다.

<회란기>에 등장하는 포증의 추리와 판결은 날카로우면서도 명쾌하다. 그는 이미 제출된 증거와 증인의 말만 믿지 않고,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 어떻게 가능했는지 범죄 동기와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등 합리적으로 사건을 분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 관련자를 모조리 잡아 와 다시 심문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펼치며, 결정적으로 어린 수량의 친엄마를 찾기 위해 기발한 방식을 도입한다. 석회로 원을 그린 뒤 아이를 집어넣고 두 엄마로 하여금 서로 잡아당기게 하는 것이다. 차마 제 아이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잡아당기기를 포기한 해당이 바로 수량의 친모임을 확인한 포증은 곧 죄인들을 다그쳐 죄상을 자백받고, 이후 사건에 관련된 모든 죄인에게 엄격하고 정당한 판결을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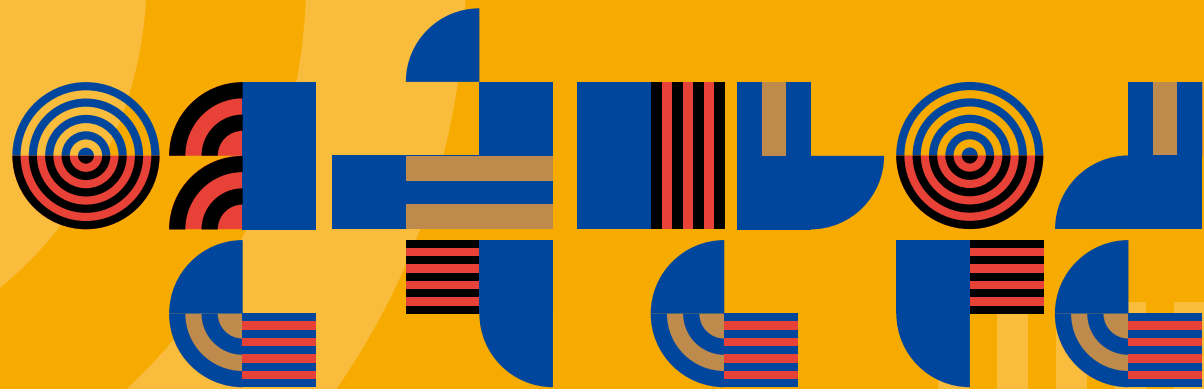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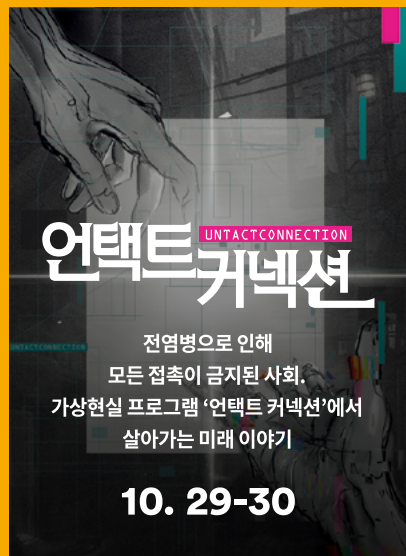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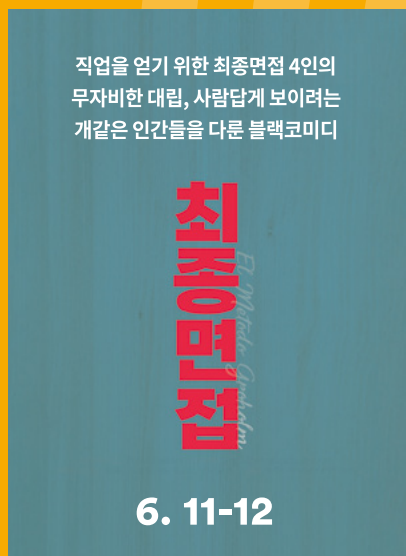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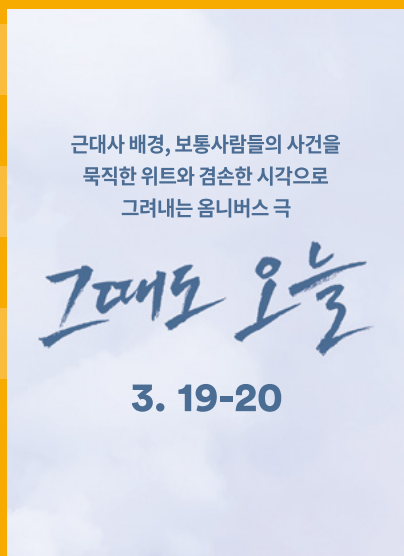
사건의 원흉인 마 부인만이 아니라 그에게 매수된 이웃과 관리, 허술하게 소송을 진행한 지방 관리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불러들여 각각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포증의 명판결은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 봐도 가슴이 뵙 뚫리는 시원함과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아마도 이런 지점이 이잡부의 <회란기>를 이후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각색, 재창작하면서 꾸준히 생명력을 이어오게 만든 원동력일 것이다.

브레히트의 서사극 <코카서스의 백목원>

이잡부의 <회란기>는 이후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여러 나라에 널리 번역, 소개되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버전은 독일 극작가 브레히트Bertolt Brecht, 1898-1956가 <회란기>의 4절을 가져와 새로 쓴 <코카서스의 백목원>일 것이다. 브레히트가 나치의 박해를 피해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시절에 쓴 이 작품은 ‘백목원’이라는 제목에서부터 이미 석회로 원을 그려 판결을 내린 <회란기>의 모티프를 차용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코카서스의 백목원>은 두 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진 극중극 형식의 연극이다. 극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코카서스 지방의 두 집단 농장이 계곡의 소유권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펼치면서 시작된다. 이에 중앙에서 온 감독관이 회의를 소집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 한 가수가 등장해 ‘하얀 동그라미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에게 들려준다. 극중극 형식으로 펼쳐지는 이 이야기가 바로 <회란기>에서 가져온 ‘두 여인과 한 아이 다툼’ 사건이다.

먼 옛날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얼룩진 시기, 이 지역의 총독이 무참히 살해되고 그 부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 전석 10,000원

토·일 2pm, 6pm | 문의 031-783-8000 | 예매 인터파크 1544-8117

ART • CULTURE • OR



- 38 **기후변화와 예술**
지구를 위해, 천천히 걷는 사람들을 위해
기후위기 속에서 예술하기
- 40 **기술과 예술**
메타버스에서 탄생하는 작은 아이들
촉지법, 분신술, 초인격의 삶
- 42 **미술 길라잡이**
미술 시장의 플레이어들
미술 시장의 분야별 특성 이해하기
- 44 **일상에서의 디자인**
의자 인간
예술과 디자인 사이에서 진화하다
- 48 **영화 속 클래식**
길의 끝에서, 삶은 계속된다
영화 <노매드랜드>와 루도비코 에이나우디
- 50 **RE:BUILT 재생건축을 읽다**
재생건축의 아이콘
예술적 영감을 자극하는 두 개의 발전소

지구를 위해 천천히 걷는 사람들을 위해

기후위기 속에서 예술하기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지난 예술터발 기후변화 레지던시¹⁾에서 만난
예술가 중 하나가 최근에 나에게 해준 말이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다.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로 뚜껑을 열어보았을 때,
우리는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나름대로 그 뚜껑을 여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1

팬데믹 이후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대해 이야
기하기 시작했고 문화예술계에도 많은 일이 있었
다. 예술가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크게 두 축으로
구분된다. 우선 내용의 변화, 두 번째로는 접근의
변화가 있다. 전자는 실제 작품이나 콘텐츠 안에
기후와 관련된 주제를 직간접적으로 담아내는 것
을 말한다. 접근의 변화는 작품 제작 과정에서 쓰
레기 줄이기, 채식지향 식사, 친환경 에너지 사용
하기 등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는 것
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돌 중 한 가지 변화로 시작
할 수 있겠지만, 많은 예술가들이 나중에는 이 모
든 것이 통합되는 과정을 경험한다. 뿐만 아니라
생활 안에서도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기후변화
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당
장의 행동을 바꿀 수 없더라도 한번 보이기 시작한
것에 눈을 감기는 어렵다. 결국, ‘모든 것’이 달라지
게 된다.

블루밍루더스, “지구가 놀러 오는 곳”

2015년, 파리기후협약²⁾이 채택됐다. 환경과 지구,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공연예술 컴퍼니 ‘블루
밍루더스Blooming Ludus’ 또한 같은 해에 런던에서
만들어졌다. 순전히 우연의 일치였다. 두 창단 멤
버, 나와 프란신이 나란히 자연과 동물을 사랑했을
뿐이다. 그때에는 사랑을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임을 알지 못했다. 우리는 지구에 대해 참 몰랐
다. 컴퍼니 초기에는 ‘기후변화’라고 하던 것이 ‘기
후위기’가 되고 이제는 ‘기후비상상태’가 되었다.
딱히 지식이 풍부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이 행성의
무언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우리는 부
지런히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다. 어떤 날은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서 동네 생태 이야기를 들었
고, 또 어떤 날은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텀스강을
참봉거리며 걸었다. 기후위기가 너무 거대하고 어
렵게 느껴져서 우리는 이것을 놀이와 이야기로 만

들었다. 그리고 지구의 목소리를 듣는 일에 집중했
다. 사람들과 함께 나누니 겨우 제대로 지구를 마
주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신의 ‘파워 스토리’는?

블루밍루더스의 첫 공연은 관객참여형 연극 <파
워스토리Power Story>로, 관객들은 게임을 수행하
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문제를 탐구한다. 공연은
질문한다. “당신의 ‘파워 스토리’는 무엇인가요?”
이때 ‘파워’는 개인과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기도
하고, 실제 우리 삶을 돌아가게 하는 전력, 에너지
이기도 하다. 작품 개발 과정에서 우리는 영국 요
크셔의 작은 마을 커비 미스퍼튼의 프래킹fracking
반대 시위 캠프를 찾아갔다. 프래킹은 땅속 깊숙이
물과 화학 제품을 섞은 물질을 고압 분사해 땅속에
서 셰일가스나 석유를 채굴하는 공법이다.³⁾ 이에
반대하기 위해 어린이가 있는 가족부터 은퇴한 노

- 1) 프래킹 반대 시위가 이루어졌던 커비 미스퍼튼 리서치 현장
- 2) 블루밍루더스의 관객참여형 연극 <파워스토리>. 관객들은 게임을 수행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문제를 탐구한다

인들까지 이 작은 마을에 결집했다. 캠프 사람들은
누구라도 방문하는 이에게 따뜻한 차를 내렸고, 밤
에는 노래와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낮에는 어린
이들과 벽에다 그림을 그렸다. 이곳 시위의 가장
기분은 천천히 걷는 것이다. 공사 트럭이 나타나
면 사람들은 트럭을 둘러싸고 천천히 걷는다. 트럭
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공사 속도를 늦춰 투자자들과 기업이
공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이다. 물론 경찰이 출
동해 사람들을 체포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평화로
운 방법을 택했다.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함
께 천천히 걷는 것. 이것이 나에게서는 마치 지구를
구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지구를 위한 티타임

작은 예술 컴퍼니가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팬데믹 속에서 우리도 커비 미스퍼튼의

사람들처럼 차를 대접하기로 했다. 그렇게 온라인
으로 ‘기후정의 티타임’이 열렸다. 세계 곳곳에서
외롭게 기후위기와 맞서고 있는 예술가들, 그리고
망설이는 예술가들을 모았다. 티타임은 곧 ‘그린
포럼’⁴⁾으로 발전했다. 캐나다 원주민의 권리와 물
오염 문제를 이야기하는 브로드리프 시어터, 참여
형 대지예술로 저항운동을 만들어낸 미국의 엘라
이자 에반스, 보드게임으로 원시림의 나무들이 아
기를 전하는 한국의 김보람 등 다양한 예술가가 포
럼에서 소개되었다. 지구를 위해 목소리를 모으는
것, 그것이 곧 7주년을 맞는 블루밍루더스가 현재
집중하는 일이다.
그래서 결국 <파워스토리>가 프래킹 공사를 막을
수 있었을까? 글썄, 아마 그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 후 커비 미스퍼튼의 주민들과 시위 캠프는 승리
를 거두었고 우리는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술가의 역할은 이런

다. 이러한 승리에 함께 기뻐할 사람을 만드는 것,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이고 지구의 편이 되어 서
로를 돌볼 사람을 찾는 것. 채효정 정치학자는 마지
막 세계는 ‘사람을 먹는 사람’과 ‘사람을 돌보는 사
람’으로 나뉜다고 말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글 이해원 블루밍루더스 공동예술감독

다국적 공연예술컴퍼니 블루밍루더스의 공동예술감독. 놀이와 오브제,
움직임을 통해 연극을 만들어 지구의 다양한 울림, 만남의 감각을 전하
고자 한다. 기후위기 속에 태어난 아이들을 위한 소리극 <환영해>, 옛대
지들을 위한 <바위가 되는 법>, 어린이들을 위한 <벨벳토끼> 등을 만들
었다. www.bloomingludus.com

1) <http://artstutbatclimatechange.com>

2) https://youtu.be/rZGn_Otfd9M

3) 이 과정에서 땅에 수많은 구멍을 뚫으며 지하수와 토양이 오염되고 자반이 약해져
지진 위험이 높아진다. 공사 과정에서 이동하는 차량 때문에 생기는 공해도 상당하다.
당시 영국에서는 이 프래킹을 허용하는 문제가 큰 이슈였다. 커비 미스퍼튼 시위

캠프에 대해서는 여기서 볼 수 있다 <https://youtu.be/UG99oSCm-8E>

4) 블루밍루더스 그린포럼의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서 볼 수 있다

<https://youtu.be/cIOYIR1eSpq>

메타버스에서 탄생하는 작은 아이들

축지법, 분신술, 초인격의 삶

내 안엔 내가 너무나 많다. 그리고 갈 수 있는 세상도 많다. 메타버스의 시대, 수많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 그리고 거기서 다른 자아가 태어난다. 기술과 예술 사이에서 나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메타버스이다.

4차원: “내 인생은 단 하나, 잘살자고!”

5차원: “수많은 내 인생, 애는 이렇고, 재는 저렇고…”



초등학교 때의 일이다. 미술학원 원장 선생님의 권유로 입시반에 들어갔다. 그런데 남자는 나 혼자, 대부분은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 누나들이었다. 실기실에는 언제나 라디오가 켜져 있었는데 그 때에는 슬픈 발라드가 대세였다. 이를테면 조하문의 ‘이 밤을 다시 한 번’¹⁹⁸⁷, 최호섭의 ‘세월이 가면’¹⁹⁸⁸, 이 두 곡은 특히나 자주 울려 퍼졌다. 당시를 회상하며 내 방의 불을 끄니 철쭉 같은 어둠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내 왼쪽에서 좌청룡, 조하문이 읊조린다. “보고 싶어질 때면 두 눈을 감아버려요…” 그러자 내 오른쪽의 우백호, 최호섭이 읊조린다. “힘없이 뒤돌아선 그대의 모습을 흐린 눈으로 바라만 보오네…” 그리고 보니 이 둘, 고수다. 우선, 조하문! 두 눈을 감으며 마음의 스크린을 켜니 비로소 그대가 떠오른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마법과도 같은 호출 버튼 이랄까. 눈꺼풀을 움직이며 지그시 나도 눈을 감는다. 아, 떠오른다. 다음, 최호섭! 흐린 눈으로 그대를 바라보니 더욱 느낌 온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변모

시키는 마법과도 같은 필터 적용이랄까. 눈물을 발산하며 지그시 나도 초점을 흐린다. 아, 느껴진다. 그렇다! 세상일, 다 마음먹기 나름이다. 즉, 조하문 스승님처럼 다른 세상으로 혹 갈 수도 있고, 최호섭 스승님처럼 이 세상을 다른 세상으로 확 바꿀 수도 있다. 물론 말은 쉽다. 행동은 어렵고. 그렇다면 과연 진정으로 무림고수가 되는 비법이 될까?

누구나 가능한 멀티태스킹의 마법

미술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나, 2020년 1학기부터 비대면 수업은 일상이 되었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전시가 열리기 불과 며칠 전이었다. 다들 시간이 촉박했는지 돌아가며 작품 크리틱을 하는데, 자기 차례가 아닌 학생들은 개인 작업에 여념이 없다. 물론 수업에 따른 반응을 보니 아마도 이야기는 계속 청취하는 중이다. 나도 작업과 라디오 듣기를 동시에 수행했던 오랜 경험이 있다. 사실 요즘도 마찬가지. 특히 컴퓨터로 단순 노동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다른

모니터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강의를 듣는다. 복수 모니터 설정으로 두 대의 모니터를 바로 옆에 놓고 각도를 조정하면 눈의 화각상 무리 없이 다 시야에 들어오기에 굳이 고개를 돌릴 필요가 없다. 업무에 별지장이 없는데다가 시간도 빨리 간다. 하지만 과부하가 올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분명한 건, 우리는 이미 다중 우주에 살고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 여러 창을 띄워놓고 탭tap을 치며 창을 바꾸는 묘기를 부린다. 여기서 개별 창을 서로 다른 세상이라고 간주하면 다중우주는 멀티태스킹multi-tasking, 다중처리능력으로 경험 가능하다. 생각해보면 원시 시대부터 사람은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아니, 숙명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들소를 사냥하며 동굴에 있는 아이를 걱정한다. 요즘에는 출근길에 페이스북을 여행하며 맹활약을 한다. 혹은, 지금 나는 배고픈데 인스타그램 속 내 먹거리는 다채롭고 화려하다. 우리는 딴 생각을 하는 중족, 이는 바로 치명적인 삶의 조건이다. 그리고 보면 조하문과 최호섭이 그냥

고수가 된 게 아니다. 이 둘은 그윽한 아픔이 있다. 이를테면 조하문의 그대, 현실계에서는 당장 내 곁에 없다. 즉, 도무지 찾을 수 없어서 괴롭다. 한편으로 최호섭의 그대, 현실계에서는 벌써 마음이 떠났다. 즉, 더 이상 있어도 있는 게 아니라 괴롭다. 결국 현실계에서는 안 된다. 아, 내 삶의 아이러니! 그런데 왜 여기만 현실계냐? 저기도 현실계지! ‘여기는 실제고 저기는 가상이다’라는 식의 이분법은 너무 단순하다. 실상은 오늘도 우리는 현실에서 꿈을 꾸다. 그리고 때로 꿈은 현실이 된다. 이와 같이 고래로 현실과 꿈은 언제나 뒤죽박죽 얹히고설키게 마련.

무림고수의 절대무공 비법

2011년 2월에 제출한 내 박사 논문은 세컨드라이프secondlife.com를 배경으로 연구되었다. 여기서는 아이디를 만들면 아바타가 생성된다. 또 다른 나로 빙의하는 것인데 나이나 성별, 외모나 체형을 정할 수 있고 웃도 마음대로 갈아입을 수 있다. 그리고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면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다. 요즘은 로블록스roblox.com나 제페토zepeto.me가 유행하는데, 이들은 일종의 메타버스metaverse로 그 원리는 통한다. 아마도 앞으로 기술이 진보하면 나누기 애매한 실체나 추상적 개념으로도 빙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테면 바람이 된다면 도대체 어떤 기분일까?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나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아니, 그게 더 이상 의미가 있을까? 아상我相은 깨지라고 있는 거다. 현재 세컨드라이프, 로블록스, 제페토에서는 사람스러운 아바타가 자신의 삶을 영위한다. 이 아바타는 일종의 스타게이트를 통해 순식간에 다른 세상으로 공간 이동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런 그리 새로운 경험이 아니다. 컴퓨터 인터

넷 브라우저에 주소를 치면 세상이 바뀐다. 창을 여러 개 띄워놓으면 동시에 여러 세상을 목도한다. 그런데 특정 세상에 국한하면 아바타는 나름대로 제약이 많다. 이를테면 여기서 저기로 가려면 뛰거나 날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축지법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방향 키를 계속 누르다 보면 어느 순간 피로감이 몰려오며 ‘현실계나 가상계나 몸뚱어리 매한가지, 뛰어다녀 힘들구냐’라는 식의 경험을 하게 된다. 게다가 그 아바타는 몸뚱어리가 하나다. 즉 복수의 아이디로 동시에 접속하지 않는 이상, 진정한 분신술을 실현하기 어렵다. 더불어 그 아바타는 마치 명사적 실체인 양, 몸뚱어리가 규정적이다. 왜 다른 세상에서마저! 장자의 나비는 그렇지 않았는데. 즉 이런 식으로는 바람이나 공기나 파도, 혹은 음기나 양기가 되는 식의 초인격을 체화할 수는 없다. 갑자기 내 뒤에서 조성모가 ‘가시나무’²⁰⁰²를 읊조린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아…” 그러자 내 앞에서 니체가 또박또박 ‘영원회귀’를 외친다. 이는 정확히 동일한 일이 무한 반복되는 개념으로, 가장 순간적인 것이 가장 영원한 게임이라고 이해 가능하다. 그래, 그때 그 결정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만약에 다른 결정을 했다면? 분명한 건 ‘결정적인 순간’, 좋건 싫건 책임은 내가 진다. 어차피 영원히 회귀하게 마련이니까. 그리고 다른 결정의 또 다른 나, 같은 이유로 마찬가지로. 다중우주에는 나와 또 다른 나, 모두 다 존재한다. 즉 이렇게 결정한 나, 이 별에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결정한 나, 저 별에서 저렇게 산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했다. 그렇다면 나만의 인공지능, 내 삶의 가능한 수많은 선택지를 마치 나뭇가지처럼 하듯이 사방으로 파생시켜보세요! 따리 디리다… 자, 빅 데이터 완성이다.

이 방대한 자료를 찬찬히 검토해보니 이 별에 사는 나, 다행히(?) 도덕적이다. 그런데 자만은 금물! 확률적인 분포상 가능한 여러 좌표 중 하나일 뿐이기에. 즉 또 다른 나는 몹시 비도덕적이다. 물론 그 외에도 별의별 ‘나’가 온 우주에 득실댄다. 따라서 ‘모두가 나’라는 전제하에 이를 평균 내면 어떤 기준이건 결국에는 0에 수렴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보니 겸허한 마음이 든다.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시간을 덧댄 4차원 ‘단시공’에 산다. 여기서 시간은 1차원이기에 내 인생은 그저 나뭇가지 하나다. 즉 단선적으로 태어나 죽는다. 그런데 우리는 4차원에 확률을 덧댄 5차원 ‘다시공’에도 산다. 그러면 시간은 복선적이기에 내 인생은 수많은 가지로 파생 가능한 잠재태가 된다. 정리하면, 4차원의 눈으로 바라본 미시적으로 일관된 나, 유일무이한 ‘단일우주적 삶’에 갇힌 마음을 다잡는다. 그리고 5차원의 눈으로 바라본 거시적으로 파생된 나, 오만 가지 색의 ‘다중우주적 삶’에 넓어진 마음을 음미한다. 물론 인생은 나그네길, 때에 따른 적절한 왕복 운동이 제맛이다. 역사적으로 회화는 특히 3차원 사물을 2차원 평면에 그리고, 2차원 평면을 3차원 사물로 연상하는 차원 이동의 마법을 시연해왔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훈련인가! 이같은 감상으로 내 삶의 기본 체력을 다지자. 결국 여기는 저기로, 저기는 여기로, 기묘한 마음 스트레칭이 관건! 마침 르네 마그리트가 회화 작품, <이것은 사과가 아니다>¹⁹⁶⁴를 쓱 보여준다. 옳소! 메뉴판이 음식이나? 음식은 내 배 속에! 가만….

글 임상빈 성신여대 서양화과 교수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미술 작품 활동을 활발히 전개 중이다.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하며 미술 교육과 예술 연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자신만의 예술적인 통찰을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심화, 확장된 글쓰기를 지속하고 있다. www.sangbinim.com

미술 시장의 플레이어들

미술 시장의 분야별 특성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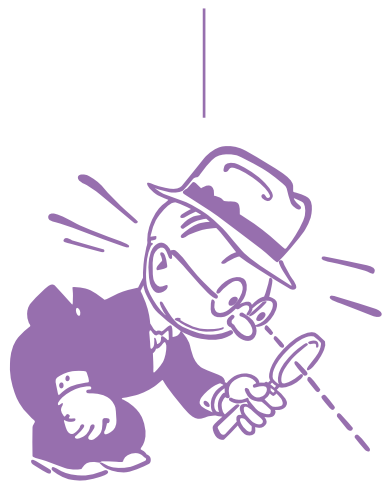
미술이 어렵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가, 갤러리, 아트 페어, 옥션, 미술관, 컬렉터, 큐레이터, 도슨트 등 미술 시장과 관련된 플레이어가 다양하기 때문이겠죠. 명품 가방을 예로 들어볼까요? 브랜드에서 생산한 제품이 플래그십 매장, 백화점, 편집숍, 온라인숍, 중고거래 마켓 등의 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다르듯, 일상 속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생산자-유통자-소비자’의 유통 과정을 거칩니다. 미술 작품의 경우에도 작가가 작품을 창작(생산)하고 갤러리(판매처)를 통해 컬렉터가 작품을 구매한다는 점에서는 일반 시장과 유사한 유통 구조라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술 시장의 각 플레이어에게는 동일 상품이 대량 생산·유통되는 일반 시장과 구분되는 고유한 특성이 존재합니다.

1. artist



우선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작가가 좋은 작가일까요? 좋은 학교를 나오고 전시 경력이 많은 작가일까요? 정답은 ‘좋은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좋은 작품이란 무엇일까요?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동시에 작품을 통해 전하려는 메시지가 탄탄해서 관람객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게 뭐가 어렵냐고요? 실제로 많은 작품을 감상해보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작품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좋은 작품은 컬렉터에게 소개하는 곳이 바로 갤러리입니다. 보통 갤러리를 ‘1차 시장’이라고 하는데, 작가가 창작한 작품을 소비자나 직접 거래하는 시장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많은 갤러리가 단순히 작품을 전

2. gallery promotion



시·판매하는 역할뿐 아니라 작가를 프로모션하기도 합니다. 연예 기획사에서 인재를 발굴해 스타로 키우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처럼, 작가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고 전시와 홍보를 통해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죠. 또 다른 1차 시장인 아트 페어는 갤러리와 어떻게 구분될까요? 한국에만 500개가 넘는 갤러리가 존재합니다. 수많은 갤러리 속에서 정보를 찾기 어렵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특정 기간에 규모 있는 장소에서 열리는 아트 페어를 찾아가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일정 기간 열리는 미술 작품 편집숍의 개념이지요. 갤러리들은 자신들이 홍보·판매하고 싶은 작가의 작품을 선별해 아트 페어에 참가하고 다양한 컬렉터들을 한자리에서 만나 다량의 작품을 거래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아트 페어는 한국화랑협회(국내 갤러리들의 협회)에서 진행하는 KIAFKorea International Art Fair입니다. 9~10월에 삼성동 코엑스에서 180여 곳에 달하는 국내외 갤러리들이 대거 참여해 수만 점의 작품을 출품하는 행사로 5일 정도에 걸쳐 진행됩니다. 운동화를 신고 속도감 있게 둘러보더라도 꼬박 몇 시간이 걸리는 규모 있는 행사죠. KIAF처럼 갤러리가 참여하는 아트 페어 외에도 작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아트 페어가 지, 국내에서도 매년 수십 개의 아트 페어를 만날 수 있으니 직접 방문해 마음에 와 닿는 작품을 찾아보고 기록해두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3. auction



갤러리스트? 학예사?
그렇다면 갤러리나 아트 페어 같은 1차 시장에서 작품을 구매해 몇 년간 잘 감상하다가 다시 판매하고 싶은 경우, 어떤 방법으로 판매가 가능할까요? 통상 해당 작품을 구매한 갤러리에 판매 위탁을 맡기거나 중고 거래 플랫폼 직거래(물론 고가의 작품은 쉽게 거래되기 힘들겠지요), 또는 옥션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작품이 재판매되는 거래 시장이 2차 시장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소장한 작품이 유명하고, 구입 희망자가 많고,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이라 최초 구매가보다 훨씬 비싸게 팔 수 있다면? 당연히 경쟁을 통해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는 옥션을 통해 판매하고 싶겠죠(저는 그렇습니다). 다음은 미술관입니다. 미술관은 왜 존재할까요? 갤러리는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지만, 미술관은 보여줄 뿐 판매하지 않습니다. 박물관에서 역사적인 유물을 보고 ‘이거 얼마예요?’라고 묻는 분은 없을 겁니다. 즉, 더 이상 창작되지 않고 작품성이 높아 귀중한 희소 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모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미술사적 의미를 대중에게 교육하는 곳이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미술관에는 미술 작품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예사라는 직업이 존재하지요. 미술관에 학예사가 있다면 갤러리에는 갤러리스트gallerist가 있습니다. 두 직업 모두 전시를 기획·진행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학예사는 작품의 학문적 가치에, 갤러리스트는 판매성과 성장성에 더 중점을 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품의 소비자인 컬렉터는 어떠한 플레이어들일까요? 신인 작가의 작품을 컬렉팅하며 작업 활동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컬렉터, 자신만의

특별한 컬렉션을 위해 특정 작품만을 수집하는 컬렉터, 투자 관점에서 구매하는 컬렉터 등 다양한 형태가 있겠죠. 각 컬렉터의 스타일은 다를지라도 작품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본인의 지갑을 연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반 공산품과 비교한다면 미술 작품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은 사실 아니까요. 나는 어떤 작가의 작품에 관심이 있을지 취향도 탐색할 겸, 미술관과 다양한 갤러리, 아트 페어 방문으로 이번 달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4. collector



글 김종현 아트디렉터, Artdotz 대표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와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순수예술을 전공하고, 뉴욕 킵스Kips 갤러리 부디렉터, 퀸스의 아티스트 레지던시 ARPNY의 디렉터2013-2015를 거쳐 브루클린 뮤지엄에서 일했다. 귀국 후 아트부산 2016 아트디렉터 등 다양한 미술 행사 진행은 물론 미술 시장에서 다방면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상명대학교에 출강하며 해외 공모전 및 전시 전문 플랫폼 Artdotz를 운영하는 한편,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에서 <미술 애호가 및 컬렉터 과정>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1

의자 인간

예술과 디자인 사이에서 진화하다

오늘도 10개 이상의 의자를 옮겨 다니며 10시간 이상을 앉은 채로 보낼 것이다. 화장실 번기에도 한두 번쯤 앉아야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수행원에게 했다는 말이다. “이봐! 의자는 말이야... 최초의 문명의 이기(利器)야!” 맞는 말씀이다.



1 어좌, 조선시대, 국립고궁박물관
2 나뭇가지+나무, 핀란드국립박물관

서서 걷는 인간, 호모 에렉투스

인간을 동물과 구분하는 여러 조건이 있다. 그중 신체적인 특징으로 구분한 학명이 호모에렉투스 Homo erectus다. ‘똑바로 선 인간’이라는 말이다. 서서 걷게 되면 시야가 더욱 넓어지고 앞발(손)의 사용이 원활해진다. 호모에렉투스는 불을 피우는 방법을 터득해 난방은 물론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바야흐로 문명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날의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을 선 채로 생활했다. 그들 역시 식사를 하거나 휴식할 때에는 앉았겠지만 일상의 대부분을 서 있거나 먹거리를 채집하는 데 써야 했다.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려면 허리와 다리의 수고가 필요하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의 척추는 충격을 보다 잘 흡수하도록 S자형으로 진화했지만 중력으로부

터 온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다. 수시로 앉아야 한다. 야외에서 휴식할 때 우리는 평평한 돌이나 널빤지를 구해 깔고 앉으며 그마저도 없다면 엉덩이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찌그러 앉는 방법을 택한다. 불편하다. 바닥과 몸을 완충하는 매개물, 의자가 필요하다. 현대 생활을 위한 인테리어와 가구에 대한 관심으로 한때 북유럽 가구가 주목받았다. 천연 소재에 기반한 핀란드의 목제 가구는 꽤나 인기가 높았다. 몇 해 전 국내에서 열린 ‘핀란드디자인전’에 그들의 역사가 담긴 의자가 여럿 소개되었다. 그중 오래 전에 만들었음직한 거칠고 투박한 나무의자가 있다. 의자의 원시적인 형태인 양, 그럴 리는 없지만 마치 원시인들이 사용했을 것 같은, 나무를 거꾸로 뒤집어놓은 모양의 의자다. 여러 갈래의 나뭇가지

가 뻗어 나와 의자의 다리가 되었는데, 나뭇가지에 걸터앉은 의자라니! 네 갈래로 뻗은 나뭇가지 다리가 움직일 듯 꿈틀댄다. 나무토막은 자연에서 가져왔지만, 의자가 만들어진 양상을 보면 이동성과 앉는 이의 편안함을 고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창조란 인간이 자연과 환경을 ‘해석·변형’하는 과정이다. 인간은 물론, 생명체의 모든 감각은 환경에 대한 생존 반응에서 발달한 것이다. 감각 능력이 세련되고 문명화되어 집적된 것이 감성이다. 창조적 행위는 물질의 본성에 대한 깊은 관찰에서부터 시작하며 마침내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낸다. 감성을 기반으로 용도와 기능에 맞게 물질을 변형시키는 행위가 ‘디자인’이다. 똑바로 서서 걷는 인간은 결국 ‘의자 인간’이었다.



1



2

- 1 바실리 의자, 마르셀 브로이어, 1925~1926
- 2 빨강·파랑 의자, 게리 리트벨트, 1918

의자에 앉는 사람, 체어맨

의자의 기원은 인류의 출현만큼이나 오래되었지만, 아무나 의자를 소유하거나 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우선 만드는 데 적지 않은 노력과 비용이 들었으며, 무엇보다도 군중들 사이에서 앉을 수 있는 신분의 왕족이나 고관대작, 성직자 등 지배층이나 특권층이어야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중반에 나온 대중가요의 한 부분이다. '빙글빙글 도는 회전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인데. ... 아~ 억울하면 출세하라, 출세를 하라.' 예전의 의자가 그랬듯이 당시에는 회전의자가 권력과 입신출세의 상징이었다. 적어도 부서장이나 책임자급, 이른바 출세한 사람들의 징표였다. 가구 산업의 발전과 기술 개발에 힘입어 요즘에는 회사의 신입사원들은 물론, 일반 가정집의 학생 자녀들도 매끈하게 미끄러지고 부드럽게 회전하는 의자를 사용한다.

이젠 회전의자도 그 가치가 떨어졌지만 의자가 가진 상징성까지 전부 없어진 것은 아니다. 20여 년 전, 차크리 시린톤 태국 공주가 국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회합 장소에 테이블과 의자 10여 개를 배치했다. 점검차 방문했던 수행원들이 의자는 한 개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치워달라고 요청했다. 자신들은 공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아야 한단다. 주석主席이나 위원장, 회장 등 우두머리를 영어로 '의자에 앉는 사람chairman'이라고 표기하지 않는가?

의자 사용이 일반화된 지는 200여 년 남짓이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기술의 발전과 보급, 도시화의 가속으로 육체노동자(블루칼라)들은 감소하는 반면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 정신노동자(화이트칼라)들은 늘어났다. 효율과 생산성을 목표로 하는 산업사회에 부합하도록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앉

아 있기'를 훈련받았다. 오늘날 전 세계 문명 국가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많게는 15년 이상의 교육을 받는다. 근대 교육의 목적 중 하나는 규율에 순응하는 습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며, 의자에 앉아 있기를 통해 더욱 내면화된다. 의자에 질리게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어야 모범적인 정신노동자가 될 수 있다.

권위와 위계의 표시였던 의자의 상징적인 힘이 사라지고 누구든지 의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사회의 부상은 의식의 민주화를 거쳐 의자의 민주화도 이뤄냈다. 이제 의자는 누구나 소유하고 앉을 수 있는 물건이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의자에 앉은 채로 생애의 대부분을 보내는 것이 현대인의 숙명이 되었다.

명품 의자

의자가 보편적 일상용품이 되면서 수많은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이 의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들이 만든 의자는 자신들의 디자인 방법론에 대한 선언이기도 했다. 다양한 인체공학적 지식과 기술, 이념까지 반영해야 하는 의미 가득한 사물이었다. 역사적으로도 의자는 생산 기술과 미학적 실체로서의 시대정신을 반영해왔다.

산업시대와 함께 등장한 르 코르뷔지에, 미스 반데로에, 마르셀 브로이어, 알바 알토, 리트벨트, 아르네 야콥센, 찰스 임스, 야나기 소리 등 많은 이들이 의자를 디자인했고, 그것들은 이 분야의 명품이 되었다. 그 의자들은 단순히 앉는다는 실용적인 목적을 넘어서는, 산업시대의 비전을 밝힌 혁명적인 산물이었다.

브로이어Marcel Breuer가 디자인한 '바실리 의자'는 공업용 쇠파이프를 배관 기술을 활용해 만든 것으로 친구이자 바우하우스의 동료였던 칸딘스키

Wassily Kandinsky의 이름에서 명칭을 딴 것이다. 이 의자는 '바우하우스의 기능주의 이념을 대변한 의자'로 모더니즘의 상징이 되었다. 명실공히 산업시대의 의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신소재를 활용하고, 산업의 논리와 질서가 의자의 형태와 재료, 구조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산업시대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고민했던 몬드리안Piet Mondrian도 예술은 '탈자연화'해야 하며, 자연의 재현적 요소를 제거하고 순수한 추상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주의 진리와 근원을 표현한 그의 회화 작품 <빨강, 파랑과 노랑의 구성>은 원색과 무채색으로 구성된 기하학적 화면으로, 모더니즘의 시각적 표상과도 같았다.

이 작품의 3차원 버전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 몬드리안과 동일한 이념을 지향했던 건축가 리트벨트Gerrit Rietveld의 수직선·수평선과 원색, 기하학적 구조로 이루어진 <빨강·파랑 의자>다. 나무로 만들었음에도 원색 도장으로 인해 재질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기하학적 골격에 쿠션도 없어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다. 앉는다는 실용적 측면과 지위의 반영이라는 상징적 측면을 모두 배제했다. 신소재를 활용하진 않았지만 기능주의 미학, 모더니즘의 이상을 충실히 담고 있다. '모더니티Modernity'는 이전 시대의 가치와 이념을 송두리째 전복시키자는 급진적이고도 완강한 시대정신이었다. 동시대에 출현한 몬드리안의 회화와 리트벨트의 의자는 평면과 입체라는 차이 외에는 동일한 이상을 표출하고 있으며, 표현 방법에도 별반 차이가 없다. 정서적으로는 몬드리안의 회화보다 리트벨트의 의자가 더 격렬하고 단호하다. 그런데 지금부터 20여 년 전, 옥션에서 이들의 추정가는 몬드리안이 약 800만 달러, 리트벨트는 약 20만 달러로 40배 정도 차이가 났다. 왜 그럴까?

태생이 몬드리안의 회화는 예술 작품이었고 리트벨트의 의자는 앉을 수 있는 가구였다. 근대미학을 정립한 칸트는 "순수예술Fine Art은 특정한 기능과 용도와는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했다. 일상 생활과는 무관한 쓸모없는 것이어야 진정한 예술이라는 뜻이었으니, 쓸모가 있는 의자는 예술의 지위에 오를 수 없었다. 쓸모를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쓸모없는 의자였음에도.

근대 디자인(산업디자인)은 산업과 예술의 결합이다. 강관의자를 만든 브로이어나 빨강·파랑 의자를 만든 리트벨트는 예술가였을까? 디자이너였을까?

탈해 의자

인간은 물질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끝없이 강구한다. 인간이 물질에 영향을 끼친 만큼 물질적 변화도 인간에게 영향을 끼친다. 지난 세기 동안 창조적인 기획자들에 의해 수없이 많은 의자들이 출현했다. 잠에서 깨어 있거나 서서 일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의자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의자들은 우리에게 편안함과 아름다움 외에 또 무슨 짓을 했을까? 뼈와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퇴화된다. 지속적인 의자 생활은 허리와 골반과 엉치뼈와 대퇴근을 무기력하게 한다.

인류가 본격적으로 의자 생활을 시작한 것은 19세기부터 200여 년쯤 되었다. 부지런한 운동만으로 장시간의 의자 사용으로 인한 신체 손상이 상쇄되지 않는다. 가급적 의자를 떠나야 한다. 허리 아픈 현대인의 탈 의자! 호모 에렉투스로의 회귀를 도울 수 있는 미래의 의자는 어떤 모습일까?

글 박현택 연필뮤지엄 관장
홍익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근무했다.
쓴 책으로 『오래된 디자인』, 『보이지 않는 디자인』 등이 있다.

길의 끝에서, 삶은 계속된다

영화 <노매드랜드>와 루도비코 에이나우디



“2011년 1월 31일 석고 보드 수요의 감소로 US석고는 네바다주 엠파이어 공장을 88년 만에 폐쇄했고, 7월에는 엠파이어 지역 우편번호 89405가 폐지됐다.”

영화 <노매드랜드 Nomadland>는 이런 쓸쓸한 자막으로 시작한다. 남편의 죽음으로 집과 가족과 일터를 모두 잃은 ‘편’(프랜시스 맥도먼드)은 밴을 타고 유랑하는 삶을 택한다. 우연히 마주친 동네 소녀의 질문에 편은 대답한다. “난 노숙자homeless가 아니야. 단지 집이 없을 뿐houseless”이라고. 우리에게 는 홈과 하우스가 모두 집으로 번역되지만, 홈이 정서적 보금자리라면 하우스는 물질적인 의미의 주택에 가까울 것이다. 그래서 영화 제목도 ‘유목민 nomad의 땅land’이다. 2020년 베네치아 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작이자 이듬해 아카데미 3관왕에 올랐던 영화는 세계 금융 위기가 남긴 생채기에 대한 탐구와도 같았다.

미국 여성 언론인 제시가 브루더의 동명 르포에 바탕하고 있지만, 원작과 영화에는 공통점뿐 아니라

차이점도 적지 않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미국 사회의 변화상을 추적한 르포는 생생하지만 건조한 톤을 일관되게 유지한다. 반면 영화는 침묵과 절제를 통해서 한 편의 서정시로 탈바꿈했다. 산문의 세계를 운문처럼 펼쳐낸 것이야말로 어쩌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일지도 모른다. 영화에서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도는 유목민들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임시로 일하는 일터가 아마존이다. 실제로 아마존은 일감이 몰리는 연말 성수기에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화도 이들이 아마존 물류 창고에서 배송 분류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듯 누군가의 직장 폐쇄와 실직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사업의 기회가 된다. 금융위기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체감하는 비정한 세상 이치다.

그렇기에 원작 르포는 아마존의 고용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아마존 노동자들의 야영지는 점점 더 국가적 재앙의 축소판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주차장은 자신들이 언제나 당연시해왔던 중산층의 안락함에서 까마득히 아래로 추락한 노동자들로 꽉 차 있었다”는 구절이 대표적이다. 반면 영화는 그저 담담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실제로 노매드 생활을 하고 있는 비전문 배우들도 영화에 출연했다.

영화는 ‘편’이라는 화자이자 관찰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가지만, 정작 원작 르포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영화는 원작 르포의 저자가 있던 자리에 편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집어넣는 방식을 택했다. 사회비판적 르포가 한 편의 서정시로 변모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는 작품상·감



노매드랜드2020
감독 클로이 자오
출연 프랜시스 맥도먼드 외

작곡가 루도비코 에이나우디



독상·여우주연상을 받았지만, 실은 최고의 각색상 후보작이기도 했다. 영화에서 편이 밴을 몰고 길 위를 달리거나 캠핑장을 거닐 적마다 이탈리아 작곡가 루도비코 에이나우디Ludovico Einaudi의 피아노 곡들이 흘러나온다. 영화를 위해 작곡한 것처럼 유려한 풍경과도 잘 어울리지만, 실은 에이나우디가 먼저 발표한 곡을 영화에 가져다 쓴 경우다. <노매드랜드>뿐 아니라 앤서니 홉킨스 주연의 <더 파더>까지 그의 음악을 사용한 영화들은 적지 않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그의 음악을 못 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실은 그의 음악인 지 몰랐기 때문일 것”이라고 재치 있게 평했다. <노매드랜드>는 2019년 에이나우디의 음반 <7일간의 산책Seven Days Walking>의 수록곡들을 담았다. 제목처럼 작곡가가 알프스 산맥을 거닐면서 떠오른 악상과 감흥을 담아 7개월에 걸쳐 7장의 음반으로 발표한 연작 프로젝트다. 유럽 알프스와 미 서부 광야, 산책과 차량이 다를 뿐 여정이 작품의 동기라는 점에서 영화와 음악에는 공통분모가 있다.

실제로 클로이 자오 감독은 “음악을 들으면서 작곡가와 편이 나란히 걷는 것만 같았다. 자연을 사랑하 는 마음이 이들을 이어주었고, 음악이 영화에도 완벽하게 들어맞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에이나우디는 밀라노 음악원에서 전위적 현대음악 작곡가 루치아노 베리오를 사사했다. 하지만 난해하고 실험적 작품에 천착했던 스승과 달리, 그는 서정적인 선율과 화음으로 자연적이고 명상적 색채가 두드러진 음악들을 써 나갔다. 여행과 산책, 나비와 안개, 바람은 그의 곡 제목에서도 빠지지 않는 단어들이다.

2016년에는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초청으로 노르웨이 빙하 지대에서 자작곡인 ‘북극을 위한 애가 Elegy for the Arctic’를 연주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그의 음악은 미니멀리즘이나 네오 클래식, 뉴 에이지로도 불린다. 간명한 곡의 구조와 흐름 속에서도 가슴 뭉클한 추억이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힘이야말로 그의 음악이 영화계에서 사랑받는 이유일 것이다.

영화 <노매드랜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면은 길이다. 길은 출발지와 행선지를 전제로 하지만, 시점과 종점을 제하고 나면 목적은 사라지고 과정만 남는다. 영화 역시 기승전결의 전통적 구조에서 벗어나서 ‘길 위의 삶’ 속에 깃든 사연에 조종히 귀기울인다. 자살을 기도하려다 두 반려견을 보고 마음을 되돌린 할머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 부모와 사별한 뒤 정주宅住보다 이주의 삶을 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뭉친 실타래가 풀리듯 한없이 이어진다. 이처럼 영화에 등장하는 길은 언제나 삶의 훌륭한 은유가 된다.

글 김성현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지휘자 사이먼 래틀과 바렌보임의 전기를 번역했고 『365일 유럽 클래식 기행』, 『시네마 클래식』, 『모차르트』, 『바이블 클래식』 등의 저서가 있다. 다양한 강연과 해설 무대는 물론, 유튜브 채널 ‘클래식 톡’을 통해 클래식과 대중의 간극을 줄여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사진 제공 윌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



RE:BUILT 재생건축을 읽다

재생건축의 아이콘

예술적 영감을 자극하는 두 개의 발전소

London

런던은 18세기 산업혁명의 중심이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는 런던의 풍경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구조를 결정지었다. 세계 최초의 만국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영국은 자국의 부와 기술을 아낌없이 과시했고 계속해서 많은 돈과 사람이 런던시로 흘러들어왔다. 한 세기 동안 런던은 다른 어떤 도시와도 비견할 수 없는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했다.



밀레니엄 브리지를 건너
테이트모던으로 향하는 사람들

©shutterstock

산업혁명의 역사는 2012 런던올림픽 개막식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등장했다. 올림픽 개막식이 무엇인가, 개최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뽐내는 자리다. 그런 올림픽 개막식의 메인 테마로 선택했을 정도로 산업혁명은 영국의 정체성을 논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역사의 한 페이지였다.

‘산업대성당’의 등장과 쇠락

수많은 공장과 사람으로 포화 상태가 된 1930년대의 런던시 전력 공급 상황은 좋지 않았다. 영국 정부는 도시에 안정적 전기 공급을 위해 화력 발전소 건립 계획을 발표했고 사람들은 정부의 결정에 열렬한 환영을 보냈다. 그렇게 템스 강변에 배터시 화력 발전소 Battersea Power Station와 뱅크사이드 발전소 Bankside Power Station가 차례로 들어서게 된다. 붉은 벽돌의 웅장하고도 군더더기 없는 발전소 건물은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책임질 든직한 지원군이였다. 그 시절 사람들 사이에서는 ‘산업대성당 Industrial Cathedral’이라 불릴 정도였으니, 20세기 화력 발전소의 위상은 신성함에 가까운 것이었다. 심지어 배터시 발전소는 영국 최고의 현대 건축물 2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늘 높이 솟아올라 연신 연기를 뿜어대는 거대한 발전소는 런던 도시 경관의 아이콘이였다.

하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경제 불황과 함께 환경오염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했던 것이다. 뱅크사이드 발전소는 1981년, 배터시 발전소는 1983년에 차례로 문을 닫았고 이후 그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덩그러니 방치돼 있는 발전소 건물을 바라보면서 빛바랜 전성기의 추억을 가끔 되새길 뿐이였다. 1990년대 말, 새천년을 준비하며 모두가 설렘으로 분주하던 때에도 여전히 이 과거의 역군들은 소외된 구시대의 유물로 남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국을 대표하는 미술 재단 테이트 Tate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중대 결정을 내린다. 이 버려진 화력 발전소를 테이트의 두 번째 미술관으로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사우스워크 지구의 발전소를 재해석하다

2000년에 개관한 테이트모던은 산업유산과 문화예술품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도시재생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개관 첫해 방문객 수는 예상했던 수치를 훌쩍 뛰어넘은 525만을 달성했으며 2019년에는 대영박물관을 제치고 런던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은 관광 명소로 이름을 올렸다. 겨우 20년 만에 루브르박물관, 바티칸미술관과 비견되는 뮤지엄으로 우뚝 선 이 현대미술관이 바로 방치돼 있던 산업화 시대의 잔해, 뱅크사이드 발전소의 새 이름이다.

런던은 템스강을 중심으로 강 북쪽과 남쪽의 발전 속도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특히 뱅크사이드 발전소가 자리한 강의 남쪽, 사우스워크 Southwark 지구는 런던에서 가장 슬럼화된 동네로 유명했다. 런던시가 필요로 하는 전력의 대부분을 책임졌음에도 문화 시설은 전무했으며, 발전소가 문을 닫은 후에는 재개발을 추진할 메리트가 없어 계속 가난한 채로 내버려둘 수밖에 없던 지역이였다. 전환점이 된 것은 영국 정부에서 21세기를 맞이해 추진한 ‘밀레니엄 프로젝트’였다. 복권 발행으로 기금을 조성해 문화와 예술, 체육 시설을 조성한다는 것이 골자였는데 이것이 테이트 재단의 미술관 건립 계획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그리고 그 후보지로 눈에 들어온 것이 런던시의 오랜 골칫거리이자 아픈 손가락 같았던 사우스워크 지역의 뱅크사이드 발전소 건물이었던 것이다. 지금에야 버려진 산업 시설을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는 아이디어가 전혀 새롭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때만 해도 현대미술관을 이런 소외된 동네에, 그것도 폐



런던은 템스강을 중심으로 강 북쪽과 남쪽의 발전 속도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특히 뱅크사이드 발전소가 자리한 강의 남쪽, 사우스워크 지구는 런던에서 가장 슬럼화된 동네로 유명했다

- 1 세계에서 가장 큰 벽돌 건물이자 유럽에서 손꼽히는 재생 프로젝트가 된 배터시 발전소
- 2 런던 중심부를 관통하는 템스강과 워털루 다리, 그리고 저 멀리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진다





터빈홀은 무언가로 차 있기보다 비어 있을 때가 더 많다. 테이트 재단은 미술관 전체 면적 중 40%만 전시실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강연, 세미나, 바자회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위한 공간으로 남겨두는 파격을 감행했다

테이트모던 터빈홀의 입구 내부 전경. 슈퍼플렉스의 작품 설치로 미술관은 신나는 놀이터가 되었다

허나 다름없는 공장 건물 자리에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테이트모던은 그렇게 전무후무한 역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테이트 재단은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국제 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했다. 새천년을 기념해 세워지는 미술관은 무엇보다도 거대한 스케일의 설치 작품이 많은 현대미술 장르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했다. 설치미술installation art은 동시대 미술 현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예술 장르였다. 그 대상 공간은 실내만이 아니라 실외 어느 곳으로든 확장되어 나갔으며, 미술은 더 이상 화이트 큐브 속 수동적인 시선의 대상으로만 존재하지 않았다. 작품이 설치되는 공간 전체가 작품이 될 수 있었고 관람객과 예술가가 작품을 통해 공간을 의미 있는 장소로, 또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이 중요해졌다. 이것은 새로운 현대미술관을 구상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안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테이트모던은 '터빈홀'이란 공간으로 이 과제를 훌륭히 해결해냈다.

재생건축에서 비롯된 예술적 영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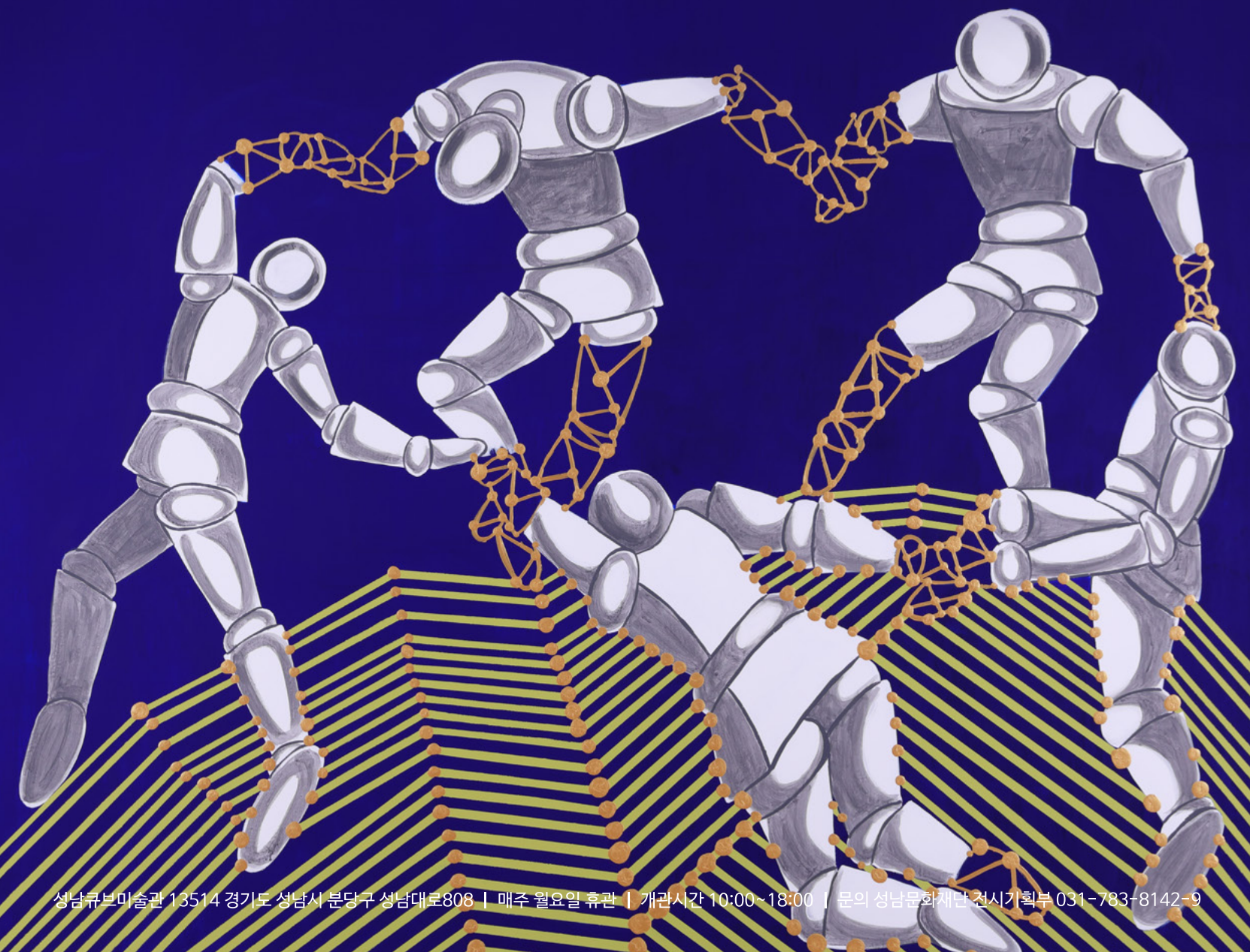
테이트모던의 터빈홀은 이 신상 뮤지엄의 상징이 됐고 이곳에 전시되는 대형 설치미술 작품들은 놀화제의 중심에 있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수많은 스타 건축가들을 제치고 테이트모던 설계권을 따낸 것은 신예였던 헤어초크 & 드 뫼롱Herzog & De Meuron이었는데, 최종 후보까지 올라간 안 중 발전소 건물의 원형을 가장 온전히 유지하는 디자인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당선을 결정지은 이유이기도 했다. 많은 건축가들이 건물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제안했지만 헤어초크 & 드 뫼롱의 안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건물의 기존 골격을 80% 이상 원래 상태로 두었으며 특히 지하의 발전기가 있던 공간을 최소한의 정비만 한 채 그대로 전시장으로 활용했다. 이것이 터빈홀이다. 20세기

말 화력 발전의 빛바래가는 마지막 유물이었던 건물을 보존하다시피 한 솔루션이 21세기 현대미술관에 가장 적합한 디자인이 된 것이었다. 테이트모던이 대성공을 거두며 지역재생의 발판이 될 수 있었던 데는 터빈홀에 전시됐던 작품들 또한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높이 35미터, 길이 155미터에 달하는 터빈홀은 현대미술의 다양한 시도들을 수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2003년 미술관 안에 거대한 인공 태양을 띄워 관람객 200만 명의 기록을 세운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의 <The Weather Project>, 55미터에 달하는 미끄럼틀을 설치했던 카르스텐 뢰러Carsten Höller의 <Test Site>, 미술관을 신나는 놀이터로 만들어버린 슈퍼플렉스Superflex의 <One Two Three Swing!>까지, 모두 테이트모던의 터빈홀이기 때문에 가능한 작품들이었다. 터빈홀은 관람객들이 온몸으로 작품에 참여하고 또 그것이 작품이 설치된 공간의 장소성을 만들어내는 현대미술의 본질을 가감 없이 담아냈다. 그 바탕에는 광활한 발전소 내부 공간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이 최고의 디자인임을 간파한 두 건축가와 테이트 재단의 안목이 있었다. 터빈홀은 무언가로 차 있기보다 비어 있을 때가 더 많다. 테이트 재단은 미술관 전체 면적 중 40%만 전시실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강연, 세미나, 바자회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위한 공간으로 남겨두는 파격을 감행했다. 그래서 테이트모던에서 일어나는 경험의 가짓수는 미술 전시 관람 외에도 수백 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활동의 형태나 규모, 참여자가 어떻게 되는 미술관 공간이 수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설계안 덕분이다. 그 중심에 있는 터빈홀은 전시실만이 아니라 광장이자 쉼터, 사고장이자 놀이터로 시시각각 변화했다. 그렇기에 테이트모던은 어떤 뮤지엄보다도 시민들의 일상 속

2021성남큐브미술관 신소장품전

유연한 풍경

2022.2.4(Fri) - 5.15(Sun)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 SEONGNAM •

BEYOND

- 60 예술가의 작업실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하여
정해나 작가
- 66 성남문화재단은 지금
- 71 캘린더



HAENA JUNG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하여

정해나 작가



정해나 작가는 실재를 바탕으로 삼고, 그 위에 허구를 채색하며 그림을 완성해간다. 한 장의 설화처럼 읽히는 그녀의 작품을 통해 사라진 존재들의 뒤를 따라가본다.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에서 4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되는 2022 성남청년작가전 2 <정해나: 은신술>의 비하인드 더신.

2022 <아트뷰>의 ‘예술가의 작업실’ 두 번째 인터뷰이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청년작가전은 지역의 청년작가들이 자신의 창작물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창구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를 준비하시면서 작가님은 어떤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전시는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큼니다.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가 작품 속에 녹아든 집 주변 풍경과 가까운 곳에 있을뿐더러, 동료 작가들이 전시를 많이 했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전시는 <은신술>이라는 제목과 테마로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일들, 무엇보다도 상실에 대한 것들을 모아 하나의 이야기로 꾸렸습니다. 특히 저는 중심에 속하지 못한, 주변부를 맴도는 이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요. 이런 내용을 담은 작품들이 공공적인 장소에 전시될 수 있어 기쁩니다.

<은신술>의 전시 제목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은신술>의 의미는 2020년에 진행했던 개인전 <긴 머리와 그보다 더 긴 허를 가진 동물의 실종>과 맞닿아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사라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라지는 사람들은 입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들을 대신해야 하는 거죠. 지난 전시에서는 언제 어디서 사라졌는지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엔 누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후속적인 이야기를 탐구했습니다. <은신술>은 여성들이 속하고 싶은 집단이나 성취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외부 요건이나 삶의 부조리함 때문에 좌절하고 사회적·심리적으로 사라진다는 내용에서 더 나아가, 불타고 묻혔던 사람들이 시대를 거슬러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다시 태어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덧붙여, 지난 전시에서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어느 형사가 실종 사건을 추리하는 과정을 일자별로 기록하는 식이었어요. 관객이 이 ‘사건일지’를 보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던 거죠. 하지만 이번엔 제가 직접 화자로 나섰습니다. 작가가 경험한 일들이 회화로 도약할 수 있는 건 언제나 실재가 아닌 허구라고 생각해요. 이번 전시에서는 ‘저’라는

작가의 목소리를 통해 실재와 허구를 각각 얼마만큼 전달할지 고민했고, 늘 도전해보고 싶었던 과제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전시에서 특히 눈여겨보았으면 하는 작품과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포스터 이미지로 활용된 <그림자 은신>이라는 작품입니다. 본래 세 피스가 한 장면으로 보일 수 있게, 합해서 큰 책장으로 느껴지게끔 구성했습니다. 전통 회화를 공부한 저에게 책장은 남다른 소재인데요, 동양화 중 각별히 책가도의 아름다움을 계승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장이 한 사람의 기억이나 이미지의 저장고라 생각되어 흥미롭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그림자 은신>을 포함한 세 작품은 실재와 허구를 연결하는 과정 중 제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고 무엇을 상상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오브제입니다.

전시 <은신술>의 작업들은 누가 어떻게 사라졌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전시 구성을 마치면 항상 첫 번째 관람객이 되어 전시실을 거닐어봅니다. 정해진 동선을 따라 걷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보기도 하고요. 지난 전시에서는 이렇게 거닐던 중 ‘언제’와 ‘어디서’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사라짐은 500년 전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렇듯 실종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특히 계층적으로 낮은, 작고 조용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라질 텐데 그렇다면 생존을 위해 위장하는 곤충처럼 우리도 은신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식물, 도자기, 관심 밖의 사물 등에 은신하다가 또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어느 인물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작품 <팔선녀>의 처녀, 산파, 무당 등 인물 여덟 명이 결국 모두 한 사람인 것도 여기서 비롯됐어요. 작년 봄, 윤중천을 산책하면서 비극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천을 따라 꽃밭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기름진 땅에서는 댕싸리가 토실

BEHIND THE VEIL



제 작품 활동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리는 겁니다

하게 잘 자라고 습한 땅의 땀싸리는 시들한 모습이었어요. 땀싸리에 감정을 이입했던 저는 한쪽에 웅원 섞인 마음을 건네며 산책로를 오갔죠. 척박한 와중에도 땀싸리들은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양쪽 땀싸리들이 전부 뜯겨나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공원 조경 탓에 정리했던 것 같은데, 저는 분노한 상태로 작업실에 돌아왔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사라져가는데 왜 아무도 모르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작업실 문틈에 끼워진 편지 8통을 발견했어요. 발신인이 누구인지 상상하며 그들의 초상화를 그리는 게 답을 찾는 과정이자 <팔선녀>의 시작입니다.

작업 노트, 소설 등 스토리텔링을 통해서도 대중을 작품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년 동안 가까운 사람의 상실, 작업실 앞에 있던 토끼의 실종, 땀싸리 사건을 겪

으며 <팔선녀>에게서 편지를 받는 이야기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곤충이나 식물이 끊임없이 위장하는 이유는 살아남기 위해서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하지 못한 채 누군가의 딸, 누이, 아내로 살며 이름을 잃었던 수많은 여성이 <팔선녀>라는 한 사람으로 태어나 편지를 부치는 거죠. 그중엔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7번째에서 8번째 사이, 미래에서 올 편지를 미리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작업을 했습니다. 처녀, 산파, 무당 등 발신인은 제 추측을 통해 구현됩니다. '방울 소리가 들린다'는 문구 등으로 미루어 짐작해 그녀의 의복과 모습을 상상해 초상을 그리는 식이죠.

이런 유기적인 스토리를 관람자가 잘 따라가려면 전시 연출도 굉장히 중요할 듯합니다.

지난 전시에 비치된 '사건일지'의 경우, 관람객이 가만히 앉아서 일지를 읽는 행

위가 개입되어야 앞에 있는 그림과 매칭해서 볼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연출되었어요. 여타 이유로 앉아서 읽지 못하는 관람객에게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죠. 이번 전시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월텍스트와 QR 코드 도입 등을 통해 그림과 이야기를 즉각적으로 접할 수 있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평소 '언어는 사고를 반영한다'는 점에 주목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야기의 수집과 재조합, 구성의 단계를 거쳐 작품으로 탄생하게 될 텐데요. 작가님의 작품으로 그 본질적인 부분을 들여보고 싶습니다.

속담이나 격언에서 사물이나 개념에 이르는 과정에 관심이 많아요. 작품 <奴-여자 여자>는 제가 처음 눈여겨보았던 여자 여(女) 부수에 얹힌 여러 가지 의미를 살피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한자를 카테고리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물이자 제 작업의 근간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한자를 기반으로 작업을 진행했지만, 다양한 문화권에서 여성을 이르는 개념이 흡사해 놀랐는데요. 어떤 부분은 '정말인가?' 하며 위축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은데.' 동의하지 못하며 갈팡질팡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유부, 혹은 성모 마리아와 같은 현덕한 여성, 두 가지 이미지와 실제 여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이미지가 쉽게 연결되지 않았어요. 제 주변에 존재하는 동료들의 이미지와도 동떨어진 느낌이었죠. 그래서 언어문화의 고정 관념과 편견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였던 것 같아요. 속담 외에 주목하는 부분은 대중매체에서 나오는 노래의 가사와 실제로 제가 듣는 말, 그리고 사회적 문제입니다. 전시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눈에 띄는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지난 전시 때에는 N번방 사건, 장기미제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진 이춘재 등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이슈가 작품에 그대로 들어오면 예술보다 르포가 돼서, 실제와 허구 사이에 적절히 거리를 벌려가며 작업하는 방식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속담, 격언, 일상에서 듣는 말, 편견, 오해 등을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만의 아카이브에 수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작가님은 평소 어떤 방법들로 작품의 영감을 얻고 계신지요?

오히려 미술 작가보다 소설 작가의 창작법에서 영감을 많이 얻는 듯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지에 집중하며 소설을 읽어요. 책을 보면서 저의 과거나 현재를 더듬어보기도 하고요. 2020년 전시는 '빛 혹은 그림자'라는 도서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 책은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과 그 그림을 모티브 삼아 소설을 쓰는 작가들의 글 모음집이에요. 어떤 작가는 어느 여름 밤 창가에 앉아 문을 여는 여성이 그려진 작품을 보고 미스터리 소설을 씁니다.

저는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 '사건일지' 속 A동의 작가가 창문을 열고 범인을 유혹한다는 내용을 담았죠. 이번 전시 준비 기간에는 『A가 X에게』라는 서간체 문학을 다시금 떠올렸어요. 모종의 인물을 상정하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 문치를 작가가 엮어냈다는 내용인데, <팔선녀>의 적용점이 되었습니다. 덧붙여, 이번 전시는 마녀사냥에서 모티프를 얻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마녀사냥의 희생자는 여성에 한정되지 않았고 재판 비용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가임기가 아닌 사람까지 모조리 대상이 되었다고 해요. 이번 전시 또한 여성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무력한 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섬세한 표현이 때로는 허구를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만의 세계를 표현하는 방식과 그에 이용되는 기법과 재료 또한 궁금합니다. 특히 바탕재의 경우, 한지와 비단, 삼베 등 소재에 따른 선택의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만약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은 재료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주저 없이 한지와 먹을 고르겠습니다. 한지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질긴 재료이고, 종이를 한 장 늘려 교반수를 칠하고 말린 뒤 먹을 갈아서 그림을 그리는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솔직한 행위거든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개인적인 이야기로 작업을 채워나갈 수는 없겠죠.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그들의 입장이 되어 공감하려면 다른 재료에 도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재료로 그림을 이어간다면 한 작가의 이야기라는 것은 명확해지겠지만 다채로운 내용을 다루기는 어려우니까요.

제가 원하는 표현 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바탕재를 선택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종이는 음양지인데요, 펼치면 차르르 윤기가 돌아서 질 좋은 옷감을 보는 듯해요. 전처리 과정에서 교반수를 얼마만큼, 몇 프로의 농도로 엮느냐에 따라 같은 음양지라고 해도 차이가 발생해요. 그래서 알맞은 비율을 연구하곤 하는데 실패했다고 종이를 다 버리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날이 흐리거나 추우면 얼룩덜룩한 표현이 남기도 하는데 오히려 이런 종이가 더 맛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몇 년도, 몇 월에 뜬 몇 그램짜리 음양지를 기준으로 종이를 찾는데 그게 다 떨어지면 다른 종이를 만나야 해요. 그때마다 처음부터 알아가고 친해지는 과정을 거치는 게 한지의 매력이죠.

비단은 아스라한 꿈결에서 볼 법한 몽환적인 풍경을 그릴 때 주로 사용합니다. 비단은 섬세하니 뒤에서 채색하면 자연스럽고 은은한 발색이 가능해요. <팔선녀> 속 인물들도 이런 채색법을 통해 훌륭히 나타나는 유령처럼 뽀얗고 몽환적으로 표현했는데요. 하룻밤 꿈에서 만났지만 천년처럼 긴 세월 동안 동료가 되기 때문이죠. 그들의 모습은 얼굴 없이 의복에 집중됩니다. 당시에는 옷차림이 시대와 신분을 상징했으니까요.

고르는 과정부터 쉽지 않은 삼베는 저에게 가장 환상적인 재료예요. 울이 고운 삼베를 구하고 도침하는 과정까지 적어도 보름에서 한 달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동안 그 안에 어떤 걸 엮을지 고민합니다. 삼베는 캔버스처럼 공장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여러 폭을 겹쳐서 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전통 제직 삼베는 폭이 35cm로 제한되어 일부는 울이 튀기도 하고 일부는 색상이 진하거나 흐리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무늬나 얼룩 같은 것이 되려 어떤 이미지를 엮어야 할지 아이디어를 주기도 합니다.

작가님의 작품 활동에 있어 일관되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늘 저답게 살 수 있는 법을 고민합니다. 대부분 삶을 주체적으로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요구들, 사회가 바라는 모습에 맞춰 사는 게 현실이지만 그림에도 저는 저답게, 제 작업도 저답게 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조금씩 거기에 가까운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림만 그리며 살고 싶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티칭잡 등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작품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목표는 4일 하던 일을 3일, 2일, 하루로 점차 줄이고 그림을 그리는 비중을 늘리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더 많은 자유와 작품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추는 게 관건이고, 서서히 그 목표에 다다르고 있어요.

제 작품 활동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리는 겁니다. 2020년 전시에 이어 이번에는 ‘누구’와 ‘어떻게’에 집중했는데 그 답은 결국 우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사라져왔고 사라질 것인데, 의미 있게 남기 위해서는 이 삶을 더 잘 살아서 미래에 새로운 여성들이 더는 사라지지 않도록 돕는 거죠. 사실 ‘어떻게’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라짐은 아주 작고 악의 없는 실수와 말에서 기인하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누가, 왜, 어떻게 사라졌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싶습니다.



정해나 작가는 소재와 색감에 관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표현한다

변화하고 있는 작가님의 세계관에 대해서도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과거에는 주된 재료로 먹을 사용했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채색 작업을 두루 했어요. 지금도 유독 겨울밤이 되면 수묵 작업을 많이 하긴 해요. 제가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아마 먹을 잡을 것 같아요. 황현산 작가님의 책 『밤이 선생이다』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눈 앞의 보자기만 한 시간이 현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조선시대 노비들이 당했던 고통도 현재다’라는 말이죠. 공감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타인의 삶에 얼마나 관여하고 아픔에 공감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더 이상 너나 너희의 일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일이 되는 거죠. 먹으로 작업할 때는 보자기만 한 슬픔에 사로잡혔던 시기예요. 그때에는 이 보자기가 숨 먹은 이불처럼 두툼하다고 생각했지만, 한결 나아진 몸과 마음으로 붓을 잡을 수 있게 되자 보자기가 커튼이 되어 밖을 볼 수 있었고, 지금은 그 커튼까지 걷고 색이 있는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게 됐어요. 저는 유독 삼베에 채색하는 걸 좋아하는데 천이라는 특성상 물감이 표면에 얹히는 게 아니라 서서히 흡수되면서 은근한 발색을 내거든요. 토채라 부르는 흙에서 채취한 물감 색이 잘 어울려요. 이번 전시에는

푸른 계열과 흰색을 섞은 남청이나 감청을 사용했는데 이후에도 아름다운 색감을 여럿 다루어보려 합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등 전시 이후의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작품이 남아 있지만, 전시가 열리면 먼저 첫 관람객이 되어 이번 전시가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판단하고 즐기고 싶어요. 그리고 주어지는 피드백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더 우아하고 설득력 있게, 아름다운 시각 회화로 제시할 수 있을지 탐구할 계획입니다. 전시를 관통하는 주제인 ‘왜 사라지게 되었는가’를 고민하며 다음 전시도 준비하고요. 5월에는 인천아트플랫폼에서 개최하는 전시에 초대되어 <연회장의 밤> 작품과 함께 관람객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글 김효경 객원기자
사진 최재우



성남문화재단 & 이강하미술관 업무협약

성남문화재단과 광주광역시 이강하미술관(1급 공립미술관)이 성남과 광주광역시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예술가 지원을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3월 17일(목) 오전 11시, 성남아트센터 뮤즈홀에서 류성근 성남문화재단 예술국장과 이선 이강하미술관 학예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하고, 지역적 경계를 넘은 예술가들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공유의 기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성남문화재단과 광주광역시 이강하미술관은 2023년까지 전시 공동 기획과 홍보, 새로 조성한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장을 활용한 교류전을 추진한다. 오는 5월 성남에서 두 지역 작가 6명이 참가하는 첫 교류전을 진행하고, 11월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성남 작가를 초대해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류전을 통해 성남 지역예술가들이 새로운 공간에서 관람객들과 만날 기회와 함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협약식에서 성남문화재단 류성근 예술국장은 “이번 협약이 성남과 광주광역시 지역작가들의 창작활동에 긍정적인 자극제가 되길 바라고, 두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을 함께 이뤄가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강하미술관 이선 학예실장도 “도시의 경계와 확장으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창작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수요일에는 예술영화를’ 성남미디어센터 상반기 상영회



성남미디어센터가 봄날 다양한 장르별·취향별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상반기 상영회를 진행한다. 6월 말까지 성남아트센터 미디어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상영회는 작품성과 예술성이 돋보이는 독립영화와 예술영화, ‘패션’과 ‘음악’을 주제로 한 개성 넘치는 작품들을 소개한다. 평소 극장에서 감상하기 어려운 독립예술영화를 소개하는 ‘독립예술영화관’(전석 4천 원)은 3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총 15편의 작품을 준비했다. 2021 칸영화제 각본상, 2022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 수상 화제작 <드라이브 마이 카>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를 비롯해 <리슨> <쁘띠마망> <끝없음에 관하여> 등, 삶과 사람에 대한 다양한 시선의 영화들이 상영된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는 기획상영회 ‘예술영화관’은 ‘패션’과 ‘음악’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3~6월에 월 2회 선보인다. 패션지 <보그>의 편집장으로 명성을 구가하다 그곳을 떠나 자신만의 매거진을 만드는 카린 로이펠트의 다큐멘터리 <마드모아젤 C>, 샤넬의 설립자 가브리엘 샤넬의 인생을 담은 <코코 샤넬>, <비긴 어게인>과 <원스>로 사랑받은 감독 존 카니의 음악영화 <싱 스트리트>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봄’을 주제로 벚꽃과 어울리는 영화를 봄바람 부는 야외에서 감상할 수 있는 ‘야외상영회’는 4월에서 5월 중 진행된다.

‘독립예술영화관’은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www.snart.or.kr 내 영화 예매 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매 또는 현장 발권으로 진행되며, ‘무료 기획상영’과 ‘야외상영회’는 성남미디어센터 홈페이지www.snmedia.or.kr에서 예약해야 한다.

문의: 031-724-8370(성남미디어센터)

2022성남청년작가전2 정해나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하여

은신술

2022.4.1.금 - 5.22.일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성남문화재단은 성남의 청년작가를 응원합니다.

성남큐브미술관 | 35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808 | 매주 월요일 휴관 | 개관시간 10:00~18:00 | 문의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031-783-8142-9

신흥·태평 공공예술창작소, 3기 입주예술가와 공공예술프로젝트 진행



2021년 신흥공공예술창작소의 주민 참여 프로그램 현장

성남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신흥·태평공공예술창작소가 3기 입주예술가(팀) 선정을 완료, 2022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공공예술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번에 선정한 입주예술가(팀)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 공모 입주팀(신흥 2개 팀, 태평 1개 팀)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위해 별도 선정한 기획 입주팀 각 1팀 등 총 5팀이다.

먼저 신흥공공예술창작소에 기획 입주하는 시각예술 프로젝트 그룹 '타.원'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는 2019년 태평공공예술창작소에서 진행한 '빈집프로젝트_사라지지 않는'의 <태평화원>과 2020년 <여기와 지금이 구별되지 않는 곡면>에 이은 세 번째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신흥동을 대상으로 한 리서치와 인터뷰, 퍼포먼스, 전시 시민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신흥동과 성남 원도심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흥공공예술창작소 공모 입주팀 중 '빛과 소리'의 <디지털로그' 하우스>는 디지털의 '디지'와 아날로그의 '로그'가 합쳐진 이름처럼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수집한 자료를 미디어 파사드로 제작하고,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함께 만든 형상물을 내부에 설치하는 등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융합한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스튜디오 모든사이'의 <프로젝트 즐겁.뜰>은 골목 사이사이 지름길이 만든

작은 정원을 삶의 공간에 채워 넣는 프로젝트다. 신흥공공예술창작소 뒤편 유휴공간을 중심으로 근처 주민들과 산책하며 그들이 생각하는 유휴공간이란 무엇인지,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은지 소통하며 지역의 지형도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태평공공예술창작소의 기획 입주팀 '프로젝트 곳곳'은 <Go Home>이란 주제로 집으로 가는 길, 그리고 집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을 움직임으로 표현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공간 리서치와 주민 인터뷰 등을 통해 마을과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어떤 공연으로 만들지 정하고, 하반기에는 태평공공예술창작소 내외부 공간을 활용한 공연을 선보인다.

공모 입주예술가는 두 가지 지역주민 참여형 프로젝트로 <'기록을 남기다' 태평이 기억>을 진행한다. 먼저 '시를 그리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시를 주민들과 함께 쓰고 싱어송라이터 메리코발트의 음악으로 풀어낼 계획이다. 두 번째 '장소의 기억, 태평의 기억'에서는 태평동의 긴 역사를 기억하는 이들과 소통하고 이를 다시 음악으로 기록한다.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시와 음악으로 풀어내 태평동만의 예술적 기록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성남문화재단은 2022 공공예술창작소 공공예술프로젝트를 통해 예술가들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지역과 소통함과 동시에 창작활동을 지원받고, 주민들은 바쁜 일상에 잊고 있던 내 지역과 이웃을 이해하며 문화예술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2022 성남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온라인 접수

<http://www.snmedia.or.kr>
→ 미디어교육 → 신청하기

방문 접수

성남미디어센터 안내데스크 ★ 홈페이지 가입 필수

교육문의

031-724-8370
화~금 10:00~21:30 / 월, 토 10:00~18:00
일요일·공휴일 휴관

SEONGNAM MEDIA CENTER

독립예술영화관 & 무료기획상영 <예술영화관>

4월



4월 6일 19시
빠띠 마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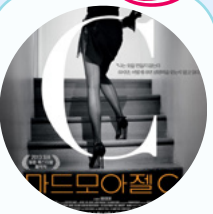
4월 13일 14시
코코샤빌



4월 13일 19시
리는



4월 20일 19시
너에게 가는 길



4월 27일 14시
마드모아젤C



4월 27일 19시
마이 뉴욕 다이어리

5월



5월 4일 19시
소설가 구보의 하루



5월 11일 14시
이브 생 로랑



5월 11일 19시
피부를 판 남자



5월 18일 19시
드라이브 마이 카



5월 25일 14시
마르지엘라



5월 25일 19시
끝없음에 관하여

6월



6월 8일 19시
원 세컨드



6월 15일 14시
싱 스트리트



6월 15일 19시
어나더 라운드



6월 22일 19시
인어가 잠든 집



6월 29일 14시
서칭 포 슈가맨



6월 29일 19시
전장의 피아니스트

매주 수요일 19시 독립예술영화관 / 둘째, 넷째 수요일 14시 무료기획상영 <예술영화관> 운영
장소 성남아트센터 미디어홀 / 관람료 4,000원 (할인대상 2,000원) / 문의 성남미디어센터 031-724-8359
성남미디어센터 홈페이지 (www.snmedia.or.kr) 상단메뉴 동네극장 > 상영작에서 2주 전부터 신청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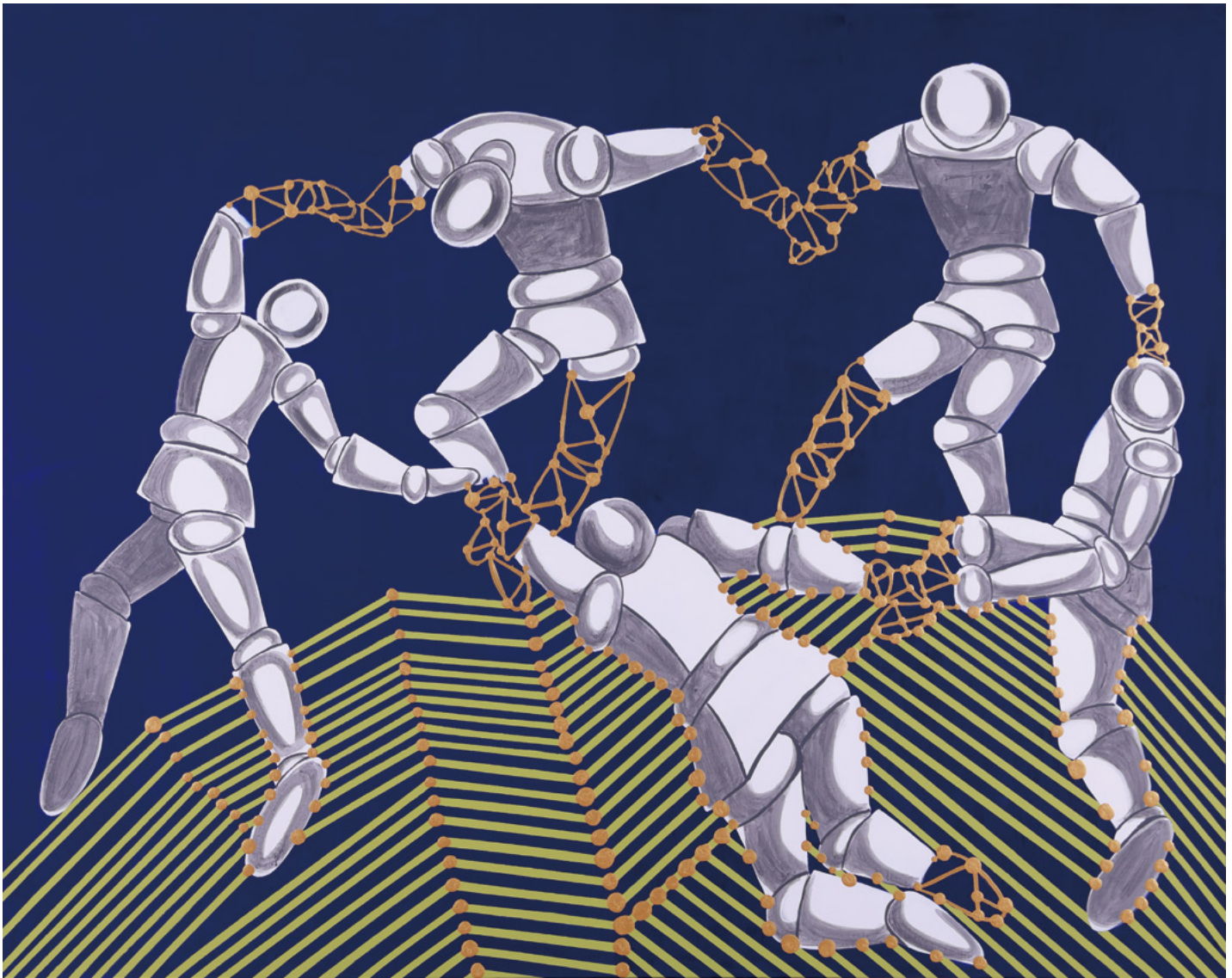
4 APRIL

sun	mon	tue	wed	thu	fri	sat
② 오페라하우스 ③ 콘서트홀 ④ 앙상블시어터 ⑤ 미디어홀 ⑥ 성남큐브미술관 ⑦ 반달갤러리 ⑧ 상설전시실 ⑨ 미디어센터 ⑩ 성남문화재단 기획공연·전시·프로그램					1 ④ 성남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19:30) ⑥ Il Canto dell'amore (사랑의 노래) (19:30)	2 ② 휘성: 2022 어쩌다 페스티벌 in 성남 (18:00) ③ 용인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22 명 협주곡 시리즈' (17:00) ⑨ 소프라노 한애화 독창회 (19:00)
3 ② 박정현, 딕펑스: 2022 어쩌다 페스티벌 in 성남(16:00) ⑧ 트리오 바론 정기연주회(17:00)	4	5 마티네 콘서트 4월	6 ④ 독립예술영화관 <빠띠마망> (19:00)	7	8 연극만원<회란가>	9 ② 뮤지컬쇼 <핑크퐁과 야기상어의 월드투어쇼> (11:00 14:00, 16:30) ③ 플레어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스페셜 콘서트 (18:00) ⑨ 연극만원 <회란가> (14:00, 18:00)
10 ② 뮤지컬쇼 <핑크퐁과 야기상어의 월드투어쇼> (11:00, 14:00) ③ 서울시민교향악단 정기연주회 (17:00) ⑨ 연극만원 <회란가> (14:00, 18:00)	11	12	13 ④ 무료예술영화관 <코코샤빌> (14:00) ⑥ 독립예술영화관 <리는> (19:00)	14	15	16 ② HYNN(박혜원) 전국투어 <HYNN FOREST> (18:00)
17 ⑧ 대한민국연극제 경기도예선 (16:00)	18	19	20 ④ 독립예술영화관 <너에게 가는 길> (19:00)	21 ⑧ 마티네 콘서트 (11:00)	22 아티스트 인사이트 II <아오이데 트리오>	23 ② 오페라 <해녀> (16:00) ⑨ Piano Trio Concert (15:00)
24 ③ 베누스토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7:00) ⑨ 이해선 클라리넷 독주회 (15:00)	25	26	27 ⑧ 김재윤 비올라 독주회 (19:30) ④ 무료예술영화관 <마드모아젤C> (14:00) ⑥ 독립예술영화관 <마이 뉴욕 다이어리> (19:00)	28 ③ 성남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19:30)	29 ③ 아티스트 인사이트 II <아오이데 트리오> (19:30) ⑨ 재능나눔 '나눔 모락 기쁨모락': 신비트리오와 떠나는 음악여행 (19:30)	30 ② THE GREATEST : 정동하소향 '전율' (14:00) ③ 테헤란밸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17:00) ⑨ With Spring II (17:00)

성남큐브미술관		
전시명	전시기간	장소
2021 신소장품전 <유연한 풍경>	2월 4일~5월 15일	⑧ ⑨ 상설전시실
지역예술가교류전 1 <공존과 화해>	5월 27일~7월 10일	⑧ ⑨ 상설전시실
2022 성남청년작가전 2 <정해나: 은신술>	4월 1일~5월 22일	③ ⑨ 반달갤러리
2022 달라이트 성남	~ 4월 15일	③ ⑨ 기획전시실
2022 동시대미감전 <식물키우기>	5월 27일~7월 3일	③ ⑨ 기획전시실

갤러리808	
전시명	전시기간
제18회 성남조각협회 정기전	4월 7일~4월 16일
그림읽기전	4월 7일~4월 18일
생활문화동호회 한마당 전시회	5월 3일~5월 15일
제41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 부문	5월 16일~5월 29일
제41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 부문	5월 30일~6월 12일

※ 전시 관람 시간 : 오전 10시~ 오후 6시 (월요일 휴관)



정애란, 알고리즘13, 2020, 캔버스에 아크릴릭 채색, 162.2x130.3cm

정애란 작가

중국 루쉰 미술대학에서 유화과를 졸업했다. 정애란은 감정, 시공간, 사람들 간의 관계 등을 신경계의 단위인 뉴런neuron에 착안하여 작업한다. 뉴런 간의 신호 전달은 마치 타인을 부정하고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서로 연결된 인간의 삶과 같다. 타인은 한 인간의 삶 속에서 부정할 수 없는 존재로, 작가는 이러한 관계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예술로 승화시킨다. <특별한 관계>2021, <CONNECT>2020, <단정함과 흐트러짐>2019, <공존>2018, <소리 없는 앙상블1>2016 등의 개인전을 열었고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금보성아트센터, 리미술관, 갤러리 피아노키오 등에서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이 외 모란현대미술대전에서 수상했다.

이 지면에서 소개하는 작품은 성남큐브미술관의 소장품입니다.

작품은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에서 열리는 <2021 성남큐브미술관 신소장품전>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21 성남큐브미술관 신소장품전: 유연한 풍경>

2월 4일(금)~5월 15일(일)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10:00~18:00, 매주 월요일 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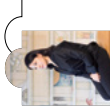
● 일상과 삶의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미팅보기
연극인들 <대화가>



RE-BUILT 재건축을 읽다
예술작업장을 자극하는 두 개의 발원소



예술가의 작업실
영호나루기

04

05



POSTCARD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휴대폰

이메일

우편요금 수취인불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20.12.1 ~ 2022.11.30
승인번호 40166-40078

이트뷰 Art & Culture Magazine 2022년 04~05

at tv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www.snat.or.kr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문화재단 홍보미디어부 <이트뷰> 담당자 앞

1	3	5	1	4
---	---	---	---	---

❶ — <아트뷰>를 어디에서 만나셨나요?

❷ — 이번 호에서 좋았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❸ — 앞으로 <아트뷰>에서 읽고 싶은 주제나 내용은 무엇입니까?

❹ — <아트뷰>에 대한 전반적인 소감이나 바라는 점을 적어주세요.

<아트뷰>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께는 해당 호 <아트뷰>를 발송해드립니다.

<아트뷰>는

성남아트센터 관객, 시민 여러분을 위한
문화예술 매거진입니다.

성남아트센터 시설 곳곳에서 언제나
<아트뷰>를 무료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시 이메일(nam@snart.or.kr)이나
전화(031-783-8024)로 연락 바랍니다.

• 별도의 개인 정기구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와 전자책 서점 리디북스에서 <아트뷰>를 만나보세요.
<아트뷰>를 무료 잡지 콘텐츠로 제공합니다.